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The Federation of Korean Cultural Center Chungnam Branch

Vol. 22

2018
야
나
라
의
화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테마기획

충남의 여성문화

풍경의 유혹

문화원 이야기

나의 문화답사기

문화원연합회 활동상황

문화원 소식

충남지방문화원 현황

충남
문화

2018 Vol. 22



충남 문화

Chungnam Cultural Magazine No.22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문화비전 선언문

문화는 삶을 담는 그릇이다. 우리는 문화시대에 살면서 세계인과 한가족으로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할 책무를 지닌다.

지방문화원은 전통문화예술의 발굴과 육성, 문화예술교육 기회의 제공, 문화자원의 확보와 활용에 앞장서 온 지역문화발전의 주역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제 인간의 창의성 계발, 우리 문화의 세계화,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화적 책임 등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선도하는 문화원이 되기 위해 역할의 재정립을 가다듬어야 한다.

지방문화원은 도약을 다짐하는 뜻에서 ‘문화원의 날’을 제정하고 우리의 공고한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지방문화원은 지역의 여러 문화 주체들의 힘을 모으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지방문화원은 이 시대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식정보와 다문화 시대의 매개자가 된다.

지방문화원은 문화 소외층이 없도록 함께 나누며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펼친다.

지방문화원은 일회적·단기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지속적·장기적인 활동을 추진한다.

지방문화원을 문화경영의 전문조직으로 적극 육성한다.

대한민국 231개 지방문화원 임직원 일동

함께 여는 새날

세모에 지난 한 해 동안의 고통을 잊어버리는 것은 삶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잊지 않고 간직하는 것은 용기입니다.
이 겨울의 한복판에서 무엇을 자르고, 무엇을 잊으며,
무엇을 간직할지 생각해 봅니다.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회장

김 한국



고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의 글을 읽으며 삶의 지혜와 용기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연말이 되면 연초에 세운 계획들이 이뤄졌는지, 또 새해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 하릴없이 쓸쓸했다가 기대에 부풀었다가 만감이 교차하는 심정이 됩니다. 하지만 무엇을 얼마만큼 해냈는지 평가하기보다 한 해의 수고로움을 털어내고 새해 덕담을 나누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다사다난' 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문단(文壇)과 문화예술계에 성폭력 고발과 미투 운동이 등불처럼 번져나가 우리에게 충격을 주었는가하면, 남북의 화해 분위기 속에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남북한의 문화예술 합동공연을 보면서 가슴 뭉클했습니다. 또한 국내 한 보이그룹이 한국 최초로 빌보드앨범차트 정상에 올라 세계적인 성공과 인기를 끌었습니다.

연합회와 충남의 문화원은 올해 처음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 생활문화 동아리를 발굴·육성하고, 도민의 생활문화 저변을 확대하는데 힘썼습니다. 그 결과 130여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1,700여명의 도민들이 문화 혜택을 누렸습니다. 지난 10월 20일 아산 신정호 국민관광지 일원에서 충남문화재단과 공동주관으로 개최한 생활문화축제는 동아리들의 문화공연, 체험, 작품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충남 문화원들의 역량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문헌으로 기록되지 않고 구술로 전해오는 우리지역의 근현대 이야기를 듣고, 그 속에 들어있는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모으고 기록하는 근현대 구술채록사업 역시 도내 문화원의 단합된 모습과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중지동천(衆志動天), 많은 사람들의 뜻이 모여 하늘을 움직입니다. 앞으로도 충남의 문화발전을 위해 힘쓰고 난제를 해결하는 일은 문화원들이 힘을 모으는 데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가족들이 힘을 합쳐 함께 한다면 높은 문화의 힘으로 아름다운 충남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 같은 하루 같지만 처음처럼 언제나 새날이 시작합니다. 산다는 것은 수많은 처음을 만들어 가는 끊임없는 시작일지 모릅니다. 다가오는 기해년 새해에도 소원성취하시고, 새 소망과 새날의 기쁨이 충만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테마기획

지역문화의 교류와 협력

- 지방문화원의 발전에 관한 소고 이종석(천안시서북구문화원장) 06
- 문화 중심도시 충남과 문화원의 역할 이정우(한국예총 충청남도연합회 감사) 10
- 생활문화 전성시대 '일상이 예술이다' 변상섭(충남문화재단 문예진흥부장) 12

충남의 여성문화

- 충남 '성평등 문화', 지금 바로 로그인 임원정규(대전여성네트워크 대표) 16

풍경의 유혹

- 어제와 오늘의 공존 '공주한옥마을' 정지은(공주문화원) 20
- 복합 역사문화교육 공간 '금산역사문화박물관' 손홍영(금산문화원) 22
- 어린이왕자문학관을 찾아 권선옥(논산문화원) 24
- 지역민을 위한 힐링파크 핫 플레이스 '삼선산수목원' 강대원(당진문화원) 26
- 시인 신동엽 문학관 김인권(부여문화원) 28
- 서산 명종대와 태실 및 비, 보물되다. 김현주(서산문화원) 30
- 서천 이하복고택 전시관 문치운(서천문화원) 32
- 아산 맹씨행당과 맹사성기념관을 소개합니다. 김형기(은양문화원) 34
- 천안의 흥! '천안흥타령관' 엄미나(천안시동남구문화원) 38
- 민족의 발자취를 품고 있는 '독립기념관' 신광식(천안시서북구문화원) 40
- 청양군 목재문화·자연사체험관 강원구(청양문화원) 42
- 만리포해수욕장 오우리(태안문화원) 44
- 토굴새우젓 홍보전시관 조남민(홍성문화원) 46



No.22 충남문화

Chungnam Cultural Magazine No.22

발행일 2018년 12월 발행인 김한국 편집위원 이종석(천안시서북구문화원), 이진우(청양문화원) 기획 정지수 편집 김상희 행정 조민영
발행처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청 별관동 209호, TEL 041)635-9102, FAX 041)635-9104

※ 본 책자는 충청남도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문화원 이야기

-
- 공주출신 재미교포 기부천사 박형만 선생 정지은(공주문화원) 48
- 모두가 하나 되는 삶꽃 세상 금산문화예술제 손홍영(금산문화원) 50
- 논산 청년작가 초대전 김형태(논산문화원) 52
- 2018 당진사랑 역사문화탐방 강대원(당진문화원) 49
- 행복하게 노는 동네 예술가들의 모임 김진경(보령문화원) 54
- 네 번째 유홍준 교수 기증유물전 열려 이미영(부여문화원) 56
- 『사암(思庵) 류숙(柳淑) 선생 재조명 학술연구』 학술발표회 개최 이용배(서산문화원) 58
- 제33회 전국향토문화 공모전 우수상 문치운(서천문화원) 59
-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할매 할배 인생은 빠담~ 빠담~ 이명숙(은양문화원) 60
- 천안시동남구문화원 개원 60주년 기념 제34회 단오축제 엄미나(천안시동남구문화원) 62
- 한 편의 동화같은 멜로디, 청양문화원 다울소리 오카리나 강원구(청양문화원) 64
- 서해안 섬 기행 이용석(태안문화원) 66
- 문화의 날 기념, 홍성군민생활문화한마당 정선영(홍성문화원) 68
-

나의 문화답사기

- 타이문화의 시작, 푸른하늘의 도시 치앙마이.
자본주의의 물살을 탄 라오스에 다녀오다 김현정(서산문화원) 70
- 메콩강을 기억하다 엄미나(천안시동남구문화원) 74
-

문화원연합회 활동상황

- 2018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활동상황 78
-

문화원 소식

- 태안문화원, 2018 대한민국 문화원상 '최우수상' 수상 태안문화원 81
- 서산문화원, 창립 60주년 기념식 서산문화원 81
-

충남지방문화원 현황

- 2018 충남지방문화원 현황 82

지방문화원의 발전에 관한 소고 주민에게 문화향유를.. 대표 슬로건이 되어야

천안시서북구문화원장 이종석

지방문화, 특히 지역문화에 대해 말을 할 때 문화라는 말 자체와 지역이라는 특이성 때문에 어디서부터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가 망설여지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날 가장 현실적인, 또한 스스로 느끼면서도 표현하지 않는 우리의 문화현실을 살펴보아야 한다.

1. 문화의 주도성

지역문화, 특히 지방도시인 충남지역 문화원의 경우, 문화의 전반적인 흐름을 두고 말할 때, 대체적인 관점은 자생적인 측면이 강조되기보다 문화를 주도한다고 여기는 집단, 단체에 의존하는, 타율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고 보여 진다.

문화예술인 자신이나 시민스스로 직접적으로 문화생활을 즐기기보다 자신과는 무관한 하나의 행사로서 느껴가는, 보편적 공감대가 전제되지 않는, 그래서 그 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대다수 지방의 문제라고 본다. 그래서, 문화 프로그램을 조직할 때, 다양하고 개별적이며 자발적인 문화, 지역민 스스로 주도하는 문화, 기존과는 다른, 시대의 변화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때, 실제에서는 감각과 창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향유하는 이에게 감동과 쾌감을 만들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문화원들의 문화사업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시 말해, 찾아오지 않는 지역 주민, 수준 낮은 문화계층을 타하고 나무라기에 앞서 문화의 질적향상을 기대하는 참다운 비평가, 비록

부족하지만 늘 고무시켜 가는 긍정적인 요소에 치중해, 지역민들의 문화사랑방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감당하는 문화원의 경영마인드, 이것이 지역의 문화를 발전시켜갈 수 있는 근본이라고 생각한다.

2. 문화의 괴리성

생활 속에서 숨쉬고, 함께하는 문화가 아닌, 시민 생활과는 무관한 문화, 이러한 문화의 괴리성은 시민들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다. 누구나 찾아가서 보고, 듣고, 즐길 수 있는 열려있는 공간이 되기 위해선 대중의 정서를 이해하려는 문화원의 적극적인 자세가 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문화원은 우선적으로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과 공간, 구조가 확보되어야 한다.

특히 웰빙시대,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여가와 레저를 요구하는 오늘날 상황에 비춰볼 때, 그 무엇보다 시급히 문화를 만들고 수용할 수 있는 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 왜냐하면, 요즘 웬만한 가정에서는 오디오와 비디오시설을 갖추고 빠른 속도로 문화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원은 더욱 빠른 문화전달, 혹은 스펙타클한 감동을 줄 수 있는 문화재료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다양성이 요구되는 현실 속에서 계층을 아우르고, 수준대별 문화욕구층을 살피면서, 시간대별로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일은 이제 문화원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문제이다.

따라서 지방문화원은 시민과 창조자 사이의 교량역할을 얼마만큼 성실히 수행하는가에 대해 늘 고심해야 한다. 고민하지 않고, 현안문제의 해결을 이루지 못한다면 향후, 지방분권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지역이 수도권으로서 복합적인 행정을 펼치게 되었을 때, 인구의 유입이 가속화되었을 때, 지역의 정체성, 향토성은 묻혀 버리고, 독창성이 없는 그저 단순한 기능도시로 전락하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아닐 수 없다.

3. 문화의 독자성 확보

오늘날 지방문화의 커다란 문제는 역사의식의 결핍이다. 충남지역의 경우, 경부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 등이 도내를 가로지르면서 사통팔달의 교통도시, 유통도시라는 지역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은 정체성보다는 동체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속칭 토박이 의식이 약화되기 쉬운 고장이라는 점은 지울 수 없다. 이는 소위 교통도시의 이미지를 강하게 드러내는 천안의 경우를 살펴볼 때 더욱 그러하다.

천안서북구문화원은 금년에 56년이 되었다. 1972년 현재의 위치인 성환역 앞에 소규모 원사를 신축한 이후 46년이 흐르도록 새로운 원사 신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인구는 10배 이상 늘었고, 문화원이 수행하는 프로그램 역시 그만큼 늘어났다. 그런데도 협소한 공간과 주차장 등 위치의 불합리로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

공간이 확보되면 거기에 맞는 문화가 자생적, 혹은 주변에 의해 문화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문화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조직할 수 있는 여건이 허락되기 때문에 창의적인 프로그램 조직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지역작가 초대전, 문인

초청 강연회, 연극, 국악, 무용, 사진, 연예, 음악 등 지역예술단체들을 자유롭게 초청해 시민과의 접목을 모색함으로 창작예술인은 물론 향유하는 시민들에게 만족을 주고, 거기서 또 다른 문화를 창출할 수 있다.

특히 전문 프로작가 외에 아마추어적인 취미 여가활동의 시민 문화운동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문화원이 그 속에서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가 하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결국 문화의 독자성을 확보하는 일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되어 있는 공동의 마당에서 서로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당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하고, 재원의 확보가 뒤따라야 한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도, 좋은 인적자원을 확보해도, 마땅한 공간이 없으면, 문화자료를 비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문화원들이 현시점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는, 열악한 환경 속의 문화원 재정, 특히 고착화되고 있는 현 상황의 타개책과, 보다 적극적으로 어떻게 유기적이고 상호적인 관계를 확보하면서 그것이 가능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 실질적 차원에서의 대응전략을 세워 나가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 고장의 문화발전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책임을 질 수 있는 문화의 주도자가 되어야 한다. 문화원은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예술단체도 아니고, 이념에 따라 성격을 달리하는 시민단체가 아닌, 문화원 진흥법에 기초한 본연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지역 문화센터로서 지역 내 주요기관이다.

따라서, 지원체계의 확립과 보조의 요구는 지극히 당연한 권리이며, 이에 대한 성실한 의무는 문화원의 시대적 사명이기도 하다. 우선적으로 재정적 지원, 후원, 관심,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 지역 문화센터의 이미지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사업의 범주에 대한 외연을 넓혀감으로 지원에 대한 다양성 확보도 필요한 문제이다. 프로그램 운영만을 위한 지원이 아니라, 좋은 인적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의 확보 등은 시급한 문제로 바라보아야 한다. 이러한 제반문제가 해결될 때, 한 지역의 문화발전이 끈고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

4. 문화원의 재정운용

지역 속의 문화원, 시민이 사랑하는 문화원의 위상정립과 함께,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문화원의 합리적 운영과 독자적인 법단체의 유지 발전을 위해 찬조금 및 회비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그 방면에 연구노력이 필요함을 말하고 싶다.

전국 231개 문화원이 동질의 목표 속에서, 또한 각양각색의 특색 속에서 우리나라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 첨단에 서있는 가운데 기업이나 시민들의 참여와 지원, 협조와 후원을 유도해 내는 프로그램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예를 들어 향토에 존재하는 기업체가 문화원을 위해 기여할 때 그 기업체가 기여한 분량만큼 눈에 띄게 더 기업의 이익이 있다는 프로그램으로서의 증거가 가장 확실한 접근일 것이며, 찬조하는 독지가, 기업체로 하여금 긍지감과 신명나게 만드는 일에 좀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갑자기 문화원을 도와야한다는 출발점은 실은 잘못된 것일 수 있다. 이렇게 돕는 것으로 사회적 가치획득이 가능한 것도 아닐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따라서 현 단계로서는 반대급부를 문화원이 먼저 기업체나 협찬자들에게 주는 방법으로 그들과 문화원의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또 한편으로는 모든 이들에게 문화원을 도우라고 말해서도 안 된다. 적어도 우리 사회가 인정하고 유지해 갈만한 수준과 질적인 면에서 문화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인정케 해주겠다는 문화적 보장을 내놓음으로써, 문화원을 위한 기금과 교환을 한다는 태도쯤은 가져야만 대등한 입장에서 현실적 진전을 볼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이러한 차원에서 각 문화원들은 발행하고 있는 문화정보지에 기성잡지의 틀과 비슷한 규모와 내용의 광고를 통해 협찬금을 끌어내고 문화원의 예산, 비예산사업 모두는 인쇄물에서 현수막에 이르기까지 광고를 동반하는 기획을 해야 한다. 또한 본예산 수입 면에 잡히지는 않았지만 청소년대상 어울마당, 사생대회, 음악회 등의 경품권, 상품 등은 시내의 유명 약기점, 책방, 체육사 등에서 상품협찬을 받는 것도 모색해 보자. 이는 오랜 시간동안 저들의 요구도가 무엇인가, 저들의 원하는 바를 프로그램 속에 반영시켜줌으로 내용을 풍부하게 만들어가면서 협조도 해 준다는 차원에서 더욱 제고되어야 한다. 그네들이 문화원의 행사에 스폰서십 할 때 스폰서와 스폰서를 받는 관계를 살펴보면 상품 연계하는 방법, 상품이미지 연계방법, 개인 이미지 연계방법, 기타 여러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이렇게 나눌 때 대부분의 스폰서십은 연계하는 방법을 요구한다. 외국의 경우도 대부분이 어떤 형태로든지 후원행사와 스폰서가 연계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구조에 상업적이라는 이미지를 굳이 부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적극적으로 연계를 향해 먼저 프로그램을 들고 나서되, 단지 연계되어도 좋을 만한 상품이나, 아니나 만을 철저히 따져보면 된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문화원을 돕는 사람들이 돈을

내놓는데 무엇보다 필요한 조건은 그 돈을 내놓을 소재의 문화원의 위상, 문화내용 그 자체가 우선 독보적인 가치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일 것이다. 이 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문화영역 자신의 작업이며, 책임이다. 그리고 이 문화자체의 가치창조가 가장 우선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5. 사회교육 기관으로서의 문화센터 역할 제고

「현대시민에게 문화를」이라는 슬로건아래 시민 문화강좌라는 타이틀로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가고 좀 더 풍요로운 생활모색을 위한 문화교육이 마련되고 있다.

천안시는 최근 들어 눈부신 발전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중부권 핵심도시로서 그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게 된 만큼 변화가 심하고 다양한 문화가 빠르게 접촉되는 공간적 특성을 나타내는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환경적 특성으로 인하여 시민들은 안정적인 정주의식을 느끼기보다는 늘 새로운 욕구를 생성하기 때문에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문화적 목표의 정립과 훈련 프로그램 개발의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경부축과 고속도로축을 중심으로 도시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그만큼 문화욕구의 증대가 요구되고 있고, 문화적 가치관을 함양시켜가는 일이 자치단체마다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문화원이 운영하고 있는 문화학교의 활성화가 시급하다. 문화학교는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는 한편, 시민들의 다양한 통로를 통해 자기체험을 표현해 낼 수 있는 능력을 지니도록 하는데 있어 가장 유효한 프로그램이다. 선진도시, 외국에 비해 아직도 사회교육이 미약한 우리의 실정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볼 때 문화학교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함을 우선적으로 절감해야 한다.

따라서, 지역의 문화 환경에 대해 늘 고뇌하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문화원은 시대적 배경과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 시작한 작은 교육기관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문화학교를 운영해야 한다. 특히 일반교육의 연장선상에서의 교육이 아니라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자기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교육으로서 지역민 모두의 삶에 문화적 만족감을 누리게 하기 위한 정신적 길잡이 역할을 하는 문화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6. 향후 비전 또는 계획

새로운 세기, 우리는 문화정보의 시대, 무한경쟁의 시대라고 일컫고 있다. 이에 새로운 시대 속의 문화원의 위상과 역할을 위해서 중장기 발전 방안 및 연구활동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문화원 조직 내의 일반회원, 이사, 문화가족 등과 함께 문화원 발전을 위한 토론회 개최도 필요하다.

모쪼록, 새로운 세기, 문화정보의 시대, 무한경쟁의 시대라고 일컫고 있는 요즈음, 새로운 시대 속의 문화원의 위상과 역할, 또 발전을 위해 단위 문화원인 충남 각 지역의 문화원들이 멀리 시대의 흐름을 예견하면서, 시급히 자리매김 할 수 있는 풍토마련과 여건의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대 명제가 되고 있다.

문화 중심도시 충남과 문화원의 역할

한국예총 충청남도연합회 감사 이 정 우

충청남도 도정발전에 있어 '문화중심도시'에 관한 것들이 중요한 모색점이다. 본래 '문화중심도시'라는 용어는 지난 16대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가 광주유세에서 '경제수도, 해양수도, 행정수도, 문화수도'와 같은 지역균형개발과 지방분권의 공약을 제시하면서 언급되었다.

이에 대해 우리 고장 충남에서도 여러 의견이 제시되었다. 즉 '충절의 고장'이라는 전통적 성격을 중시할 것인지, '의향(義鄕)'이라는 정신적 가치를 중시할 것인지, 문화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 마케팅'을 중심으로 볼 것인지, '문화관광'을 중시하는 지역발전론을 중시할 것인지 등에 대해 여러 의견과 함께 견해의 차이가 밝혀졌었다.

오랜 기간에 걸친 지역적 차별과 소외로 인한 낙후된 경제 상황을 극복하는 하나의 계기로서 '문화'와 '문화산업'을 추진하자는 의견은, 특별한 SOC가 요구되지 않는 '문화산업'의 특성과 새롭게 부상하는 21세기형 국가적 산업이기도 하다는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물론 불확실한 미래산업이고 지역의 역량이 충분하지 않다는 반론도 있겠으나, 세계적 추세나 경제발전 단계에 비추어 볼 경우 새로운 분야를 선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더 강한 상황에서 문화는 블루오션으로 여겨지는 게 추세이다.

'도시 마케팅'을 중시하는 의견은 도문예회관이라는

복합문화센터를 축으로 문화의 교류, 연구, 교육, 향유 등을 통해 집중적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타 시도에 비해 충효 열사의 문화적 자산을 많이 안고 있다는 주변적 요소를 중시하는 의견은 문화가 궁극적으로 '정신적 가치'를 계승하는 것이라는 점을 주목하여 역사와 전통에 기반한 새로운 공동체를 구축하는 계기로 활용하자고 주장한다. '충절의 고장' 측면을 강조하는 측은 '문화예술'을 꽃피울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지원, 소비를 구축해 보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의견들은 더 많은 논의를 거쳐 집약되고 수렴되면서 보다 효율적인 도시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리라 여겨진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충남도가 지닌 차별화된 문화예술 즉, 백제문화제, 중고제 맥잇기, 보부상 장마당놀이, 보령머드축제, 한산모시축제, 천안삼거리흥타령춤축제 등과 같은 대형 이벤트들과 '이제는 금강이다'와 같은 중단기 프로젝트 등을 통해 충남의 문화적 역량을 축적하고 전시하는 효과를 그동안 이룩해 왔었다. 하지만 열정과 의지에 비해 문화중심도시의 구체적 계획들과는 긴밀한 연계성을 구축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즉 각각의 이벤트들이 추구하는 주제나 방향이 다양하면서도 집중되지 못하여, 문화중심도시의 위상과 적절하고 긴밀하게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보령머드축제



천안흥타령춤축제



2018년 개관한 충남도서관

또한 문화중심도시가 궁극적으로는 외적으로는 도시의 발전을 추진하면서 내적으로는 시민사회의 문화적 성숙, 문화민주주의의 달성, 문화예술단체들의 자율성 확보 등과 같은 거시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터이나, 현재적 시점에서는 아직 이러한 그림들이 명료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21세기에 들어서 '문화'가 핵심 키워드가 된 것은 세계적 추세이다. 물질적 풍요에서 정신적, 감성적 풍요를 추구하는 시대적 패러다임의 변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어 버린 '문화산업'이 상호작용을 하게 됨에 따라, '문화'는 이제 지역을 넘어서서 핵심적 관심사가 되었다. 우리 사회에서 경주가 역사문화 중심도시, 전주가 전통문화 중심도시, 부산이 영상문화 중심도시, 대구가 문화산업 중심도시로 만들겠다는 선언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런 여러 문화중심도시 속에서 우리 '충남'이 가지는 특성과 독자성, 정체성은 과연 무엇이며, 어떤 방향을 견지해야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때문에 충남이란 지역에서는 백화점식의 문화행사나 전시성 이벤트가 아닌, 지역의 정체성을 담보한 문화를 만들어야 하며, 이러한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문화중심도시'의 컨셉이나 계획들과 세밀하게 연관됨으로 '새로운 충남', '변화하는 충남'을 만드는 요소라고 본다.

이런 점에서 충남이 진정한 한국의 중심으로, 문화중심으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문화의 창조와 생산, 매개, 수용과 소비라는 점에서 그 고리들을 어떻게 구축하고, 또 어떻게 진행할 것이며, 문화교육, 문화산업의 육성과 문화관광의 이미지 창출에 관해, 그리고 통일시대를 대비한 지역정체성 확보를 위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그리고 심도 있는 정책개발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실례로, 행정중심 수도의 기능을 담당하는 세종시와 환황해권 경제문화도시의 중심으로 자리할 내포신도시의 조성을 살펴보자. 때문에 충남이 통일 이후 남북의

교량역할을 자임할 수 있는 한반도 중핵도시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국립국악원을 충남으로 이전 유치해야 할 당위성이라든가, 시대성을 간직하면서 변화와 함께 새로움의 대중성을 드러내기 위한 '충남도서관' 건립과 '충남미술관'을 건립하는 일, 중고제의 발상지 충남에서 역동성을 갖춘 다양한 '노동요'와 시대를 넘나드는 장르별 '가요'를 지역 이미지로 접목해 '이제는 금강이다'를 외치는 일, 수탈의 역사가 아니라 번영을 담보하는 '새로운 장항선시대'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피력 등이 그것이다.

이것들이 충남의 주체적 역량과 지혜가 결집하여 슬기롭게 해결된다면, 충남이 지방시대, 문화 분권시대에 있어 새로운 시도와 모범으로 분명하게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다.

이러기 위해서는 주도하는, 주체적 세력이 자리해야 한다. 충남의 문화가 발전하려면 무엇보다, 책임을 질 수 있는 문화의 주도자가 있어야 한다. 그 세력은 문화예술단체, 문화원과 예총이어야 한다. 아직은 저마다 열악한 상황을 극복해 가는 타개책과 주변과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확보하는 일에 매달리다 보니, 보다 넓은 안목으로 충남을 바라보는 데 한계가 있다 하지만, 문화원들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조금씩 드러낸다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 예견된다.

문화원은 이익집단이 아니다. 이념에 따라 성격을 달리하는 시민단체도 아니다. 스스로 문화적 영역을 구축해 가는 문화 플랫폼이다. 문화전도사를 자칭하는 문화매개자이다. 지역의 문화 정체성 확보라든가, 혹은 문화향수권 신장에 기여하는 향토성에 기초한 문화센터이다.

모쪼록, 멀리 시대의 흐름을 예견하면서, 문화의 주도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풍토마련과 독자성 확보를 위한 여건의 개선과 함께 본래 창립 목표였던 문화창달을 위해 헌신적으로 나서는 향토 지킴이가 되기를 소망한다.

생활문화 전성시대 '일상이 예술이다'

충남문화재단 문예진흥부장 **변상섭**

바야흐로 생활문화 전성시대다! 지방자치 도입과 함께 시작된 획일적이고 내용 없는 축제 전성시대에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문화와 예술이 중심이 되는 축제로 옮겨 진화하는 모양새가 아닌가 싶다. 진작 이랬어야 했는데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다.

'아는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보다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즐기는 사람 보다 못하다'는 말이 있듯이 생활문화는 좋아서 즐기는 '놀이'이니 누군들 당해낼 재간이 있겠는가. 예산이 충분하게 지원되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생활 예술인들은 그깟 예산 없어도 상관없다. 예산 몇 푼 지원하고 간섭(정산 또는 사용제한 등)하려면 되레 분위기만 망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천명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만 존중한다면 한마디로 '쌩큐'다.

충남도과 충남문화재단도 이같은 틀거리를 근간으로 2017년 생활문화활성화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일부 시·군은 이보다 앞서 생활문화 지원사업을 시작한 곳도 있어서 후발주자로서 시행착오를 덜기위해 촘촘한 계획을 바탕으로 추진했다.





무엇보다 미더운 점은 2년차부터는 동아리 회원 모집 및 지원과 성과발표회 성격인 생활문화축제를 충남문화원연합회와 협업으로 했다는 점이다. 특히 도내 15개 시·군문화원이 생활문화동아리 활동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문화원 공간을 동아리 강의실로 활용하면서 단기간에 기대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었다.

그 결과 2018년 150개의 새로운 동아리가 결성돼 도민들이 일상에서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10월에는 아산 신정호 잔디광장에서 1000명의 동아리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충남 생활문화축제를 성대하게 치렀다. 충남도와 충남문화재단, 그리고 충남문화원연합회간 신뢰로 구축된 문화예술 거버넌스의 가장 큰 결실이자 선물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충남문화재단은 지난 2년에 걸쳐 도민들의 보다 수준 높은 문화향유를 위해 '생활문화 전성시대'를 알리는

애드벌룬을 띄웠지만 아직은 시작일 뿐이다. 시작이 반이라 하지만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다는 얘기가.

생활문화전성시대에 걸맞는 완결체를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 생활문화의 완결체는 도민들이 일상에서 자발적으로 문화예술을 즐기는 것만으로는 5% 부족하다. 문화예술이 일상의 주체로 떠오르는 시대정신과는 틈새가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가. 문재인 정부 10대 국정과제에 '일상에서 즐기는 생활문화시대'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문화의 일상화와 생활문화의 거점 확충'을 10대 과제에 포함시킨 것도 이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진정한 생활문화의 지향점은 '문화예술 향유자가 공급자가 되고, 공급자가 향유자가 되는 건강한 생태계 구축이다. 동시에 동아리 활동을 통해 배운 재능과 끼를 펼치고 봉사할 수 있는 영역까지 확장시키는 선순환 시스템도 마련돼야 한다. 생활문화와 예술이



지역사회 공동체에 탄실하게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자칫 사상누각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서 제기되는 것이다.

충남의 생활문화와 예술이 자생력을 갖고 스스로 진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결과제가 있다. 문화예술 활동으로 도민이 행복하고 더 나가 치유의 수단으로 업그레이드되기 위해서는 충남도를 비롯한 충남문화재단, 지역정치권, 충남문화원연합회가 ‘팔 길이 원칙’을 전제로 적극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도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문화예술 불모지의 불명예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첫 번째는 인프라 확충이다.

근래 들어 동아리 활동수요가 급증 추세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귀농·귀촌인구 증가, 주부들의 참여, 여기에 직장인들도 가세하면서 교육공간과 연습공간, 발표 무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문화재단이 서천군과 함께 서천에 공연연습장 조성을

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공간부족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 읍면단위로 문화 사랑방 형식의 소규모 공간을 만들어 공급해야 한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생활동아리 활동이 병목 현상에 부딪혀 발전이 더뎠을 게 분명하다.

두 번째는 문화전문 기획자 양성과 함께 이들의 일자리 제공이다.

생활문화가 확장성을 가지려면 교육과 지원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익힌 재능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봉사활동까지 이어져야 한다. 바로 이 역할을 담당할 전문가가 문화기획자다.

생활문화는 교육→발표→봉사활동으로 이어지는 진화과정 속에서 평범한 도민이 생활예술가로 성장하고 그 속에서 성취감과 함께 보람을 얻는 등 순기능역할을 하면서 지역사회에 소중한 문화예술 자산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일부 자치단체에서 일자리 만들기 차원에서 청년문화



기획자를 양성해 문화예술 매개자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세 번째는 기존의 틀을 깬 전문강사 지원이다.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강의 설계와 함께 전문강사 지원이 필요하다.

드물지만 수강생이 적거나 전문강사 섭외가 여의치 않아 강좌가 개설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생활문화동아리 활동은 다양성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재단은 문화원 연합회를 비롯해 유관 기관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성해 폭넓은 강사 풀을 구성해 시범적으로 강사배달제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네 번째는 예산이다.

어떤 명목의 예산이든 충분할 수는 없다.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특히 인색한 분야가 문화예술이다. 작금의 문화예술 지도는 전문예술과 생활예술로 양분되는 형국이다.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인식됐던 생활문화를

주류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음이다. 당연히 정부와 자치단체도 눈을 돌려 관심을 보여야 한다. 단박에 많은 예산을 늘릴 수는 없다. 국민의 수요와 욕구가 전제되는 선에서 단계적인 증액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국가와 자치단체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이제는 문화예술이 국가발전, 선진국으로 가는 SOC(사회간접자본)임을 부인하지 말라는 주문이다.

판소리에 귀명창이란 말이 있다. 말인 즉은 소리는 못하지만 감상 수준이 명창에 버금간다는 의미다. 생활문화가 융성하려면 모든 분야에 귀명창이 많아야 한다. 미술, 클래식, 연극 등 예술 장르마다 귀명창과 마니아가 차고 넘쳐야 한다. 그래야 공연장과 전시장마다 관람객이 차고 넘친다.

생활문화지원사업은 바로 우리사회에 문화예술 귀명창을 양성하는 예술학교인 셈이다. 허투루 여기거나 넘겨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충남 '성평등 문화' 지금 바로 로그인

충남 성평등교육강사 ·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

임원 정규

차별이 아직 존재하지만 점차 나아지고 있으므로 '차별이 이제 없다고 봐야한다'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차별은 있거나 없는데, 누군가가 숨 쉬듯 차별을 느낀다면 차별은 있는 겁니다. 어려운 건 점잖은 말투로 '우리 사회에 차별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건 인정하지만 내가 말하는 건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더 위험한 건 '근데 나는 잘 모르겠던데 네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니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공기처럼 존재하는 차별이 자신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별이 아예 없거나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언어가 필요하다 / 이민경〉 본문 중에서

올해 1월 서지현 검사가 검찰 내 성폭력을 폭로하면서 국내에 촉발한 ‘미투(#metoo · 나도 말한다)’ 운동은, 그야말로 들불처럼 번지면서 이 땅 전반에 뿌리 깊었던 성폭력을 불태우며 남성중심주의라는 밑바닥을 드러냈다. 이는 문화계에도 급속도로 번지며 그간 숨죽이고, 숨어지내던 피해자들이 하나둘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분야를 막론하고 문화계 전체에 경종을 울렸다.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이윤택, 극단 목화 대표 오태석, 연극연출가 김석만, 청주대 교수, 배우 조재현, 김기덕 감독, 고은 시인, 박재동 시사만화가 등 각 분야에서 존경받고 영향력을 행사하며 문화권력이 돼 온 예술가들이 오랫동안 죄의식 없이 성폭력을 일삼았고, 권력의 주변인들은 방조했다. 침묵의 카르텔이다. 미투운동의 진정한 의미는 유명인 몇 사람의 추락을 넘어 문화예술계, 나아가 한국사회의 체질변화로 이어지는데 있다. 문화계 성폭력이 단지 일부 인사의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라 가부장적 구조의 산물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고 한해동안 8차에 걸쳐 대책회의를 통해 문화예술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권고문을 발표했다. 대책위는 2차 권고문에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시스템 설치,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센터 연계 강화, 체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 방안 마련, 표준계약서의 개정 및 활성화 방안 마련,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정책의 지역 확산 등, 5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권고문은 문화예술계의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문체부의 구체 조치 등을 담은 가칭 “예술가의 권리 보장법” 제정 이전에도 고충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예술인

복지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도 예술인의 성희롱·성폭력 방지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지역에서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인식 확산과 이를 위한 여건 조성에 정부차원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 10월 “예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조항에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예술계의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과 피해 구제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문화예술 분야 성희롱·성폭력 현황을 파악하고, 객관적인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분야별로 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성평등문화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신설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지난 2011년 1월 빈곤한 삶을 살다 떠난故 최고는 작가의 죽음 이후 이 같은 상황을 막고자 예술인복지법 제정 이후 관련한 조례를 최근까지 제정해왔다.

- 2013** → 10월 울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12월 대전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 2015** → 11월 부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2016** → 5월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9월 인천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9월 전라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11월 광주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11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2017** → 6월 경상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9월 서울시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 2018** → 2월 전라남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또 경기도는 최근 문화계 미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예술인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지침,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구제 지원사업, 예술인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현황 실태조사에 관한사항)'이 통과되었다.

하지만 충남도의 현실은 어떠한가?

한국의 '2018 미투'를 꼽을 때 단연 떠올리는 충남도 前지사 사건, 여성가족부가 매년 발표하는 성평등 지수 순위에서 수년간 하위권에 머무는 현실, 지방선거를 통해 새롭게 출범한 양승조지사의 전국최초 '문화체육부지사'를 신설하였지만 예술인의 복지에 관한, 문화계 미투에 관한 대책은 전무한 상태이다.

지난 11월 말, 충남문화원연합회에서는 미투사회운동의 흐름과 충남여성문화의 점점 찾기를 위한 의견 수렴, 지역여성문화인의 현실 진단, 충남도의 실질적인 성평등문화정책발굴을 위한 취지로 [충남여성문화, 평등과 참여로 가는 100인 원탁회의]를 개최하였다. 80여명의 충남문화원 관계자와 여성문화인들이 참여하여 충남에서 여성문화인으로 살아가는 것, 여성문화인의 일과 삶, 함께 돌봄을 위해 필요한 것, 충남도의 성평등문화정책을 위한 과제모색 등에 대해 두시간 가량 열띤 시간을 가졌고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었다.

충남문화예술의 현실도 사회 전반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가부장적이고 기성세대의 술문화와 갑질, 남성중심의

언어와 인식이 팽배하게 존재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뿐만 아니라 결혼, 임신, 육아로 인해 사회에서 암묵적으로 강요받는 퇴사 등 경력단절, 독박육아가 그대로 적용되기도 하고 출근과 퇴근의 형태가 유연하고 생계를 책임질만큼의 경제적 보탬이 되지 못하는 형편에서 여성의 문화예술활동이 가족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을 호소하였다. 또 문화예술에서의 여성의 섬세함과 문화감수성의 경력이 지속적으로 발굴되어 전문역량을 갖추고 충남의 시군의 경계를 넘어 거버넌스로 만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한채 생계의 어려움, 일과 삶의 양립의 어려움, 경력단절로 인한 여성문화전문인력풀 부족과 소통부족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한 해결과제로 여성문화인을 위한 좋은 일자리, 일과 삶 양립을 위한 사각지대 문제 해결과 복지혜택 마련, 문화예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유공간 마련, 양질의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의 발굴과 확대, 여성주의 문화제 개최, 여성문화전문가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마련 공론화와 여성문화인 표창, 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한 문화영역 교육 확대, 소규모, 가족단위, 찾아가는 지역문화예술 정책 확대와 홍보강화, 소규모 여성문화포럼 마련 등이 도출되었다.

예술인복지조례를 먼저 제정한 서울시는 [서울예술인 플랜]을 마련하여 2030년 세계 10위의 예술인이 활동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하도록 선포하였다. 예술인의 주거, 창작공간 확충, 예술인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진입장벽 없는 창작활동 촉진, 예술인 교육 및 교류지원, 예술청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중 한 예로 예술인자녀돌봄센터(이하 예봄센터) 운영을 통해 예술인 자녀를 위한 시간제 돌봄과 함께 예술인 소모임 공간을 무료로 대관하고 있다.

[충남여성문화, 평등과 참여로 가는 100인 원탁회의]를 통해 제안된 과제 역시 서울시에서 추진한 내용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다만 원탁회의를 통해 도출된 과제가 단발적인 이벤트로만 그치지 않도록 하는 후속작업이 중요하다. 의회차원에서의 법적 근거 마련에 힘쓰고, 행정과 젠더전문가는 여성문화인, 성평등 문화정책에 대해 통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무엇보다도 근간이 되어야 하는 것은 각 영역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직접적인 목소리가 모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미투'는 어느새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정의가 숨쉬는 사회를 만드는 기준이 되고 있다. 민선7기 충남도의 문화예술인에 대한 성평등 가치 반영, 복지, 일과 삶 양립 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로, 각 주체별로 따로 또 같이 교차하며 정책이 더 가깝게 체감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어제와 오늘의 공존 '공주한옥마을'

공주문화원
정지은



공주에는 평화로움과 바람 냄새,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어제와 오늘이 공존하고 있는 공주한옥마을이 있다.

한옥은 예로부터 우리나라의 전통 건축양식으로 지은 집으로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역사가 담겨 있는 집이다. 특히 사계절을 가진 우리나라 특성에 따라 여름에는 시원하게 보내기 위해 마루를 지니고 있고, 겨울에는 난방을 위해 바닥에는 온돌을 깔고 벽은 토벽으로 지어져 있으며 문은 한지로 발랐다고 한다. 이처럼 지붕부터 기둥, 벽, 바닥에 이르기까지 자연에서 얻은 재료를 사용해 건축한 조상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건축물이다.

옛 것의 형태를 이어가되 기능적인 부분을 인정하고 변화시켜 개촌한 공주한옥마을은 2010 세계대백제전을 준비하며 관광객들이 편히 쉬어갈 수 있는 숙박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조성된 공간으로 공주를 대표하는 숙박단지라고 할 수 있다.

한옥에 익숙하지 않은 요즘 세대들에게도 친근하게 한옥을 접하며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전통한옥의 불편한 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욕실이나 화장실 등은 모두 현대화된 시설로 개량했지만, 전통한옥만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난방시설만큼은 옛날 방식 그대로 살렸다고 한다.

주차를 하고 들어간 한옥마을 입구에는 공주시의

마스코트인 고마곰과 공주가 언제나 그렇듯이 반갑게 손을 흔들며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길에 걸터둔 청사초롱은 날이 오시는 날 청사초롱으로 불 밝히던 옛날 감성을 그대로 옮겨와 걸어가는 내내 나를 반겨주는 것 마냥 기분이 좋다.

고마관, 웅진관 등 6개의 단체동과, 면 소재지의 이름을 붙인 16개의 개별숙박동이 있다. 공주지역의 숙박객이 와서 보면 훨씬 정감이 있어 하고, 외지에 나가 있다가 고향을 찾은 관광객이라면 아마 자기 고향마을 이름을 찾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곳을 다녀간 방문객들은 참나무를 이용한 구들장 난방을 한옥마을의 가장 큰 매력으로 꼽는다고 한다. 이궁이에 불을 때면 아랫목에서는 뜨끈뜨끈하고 윗목은 시원하게 해 이곳에 누우면 등 쪽으로는 뜨끈하지만, 머리는 맑게 잠을 청할 수 있다.

한옥마을 사이사이의 골목을 거닐다보면 건물 외벽에 세운 누군가가 사용했을 손때 묻은 소품들이 마치 추억을

소환하듯 정겹게 느껴진다. 그리고 싸리문이 자리 잡고 있는 숙박동은 투숙객이 있고 없고를 나타내는 '어허 물러가라', '자네 왔는가' 등 반가운 인사말이 걸려 있고 그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1970년대 우리나라 농촌 아궁이와 부뚜막 위에 놓인 손때 탄 그릇들이 반갑게 맞이해주고 있다.

살짝 높은 골목길 언덕에서 고즈넉한 한옥마을을 내려다보고 있다면 웅기종기 모여 있는 뽕족뽕족한 기와지붕과 나지막한 한옥 담장이 보는 것만으로도 사람을 차분하게 만든다. 한옥의 고풍스런 기운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확실히 경건한 마음이 든다.

숙박을 하지 않더라도 곳곳에 자리한 고풍 감상만으로도 충분히 공주한옥마을을 즐기다 올 수 있다.

공주한옥마을

주소: 충청남도 공주시 관광단지길 12(웅진동)

문의: 041)840-8900



복합 역사문화교육 공간 '금산역사문화박물관'

금산문화원
손홍영



금산문화원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금산역사문화박물관이 위치해 있다. 지난 2018년 5월 28일 개관한 금산역사문화박물관은 금산 출토유물과 민속유물 등 650여 점의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1층 금산역사관과 2층 금산생활민속관으로 구성된 상설전시관에서는 역사의 흐름을 '길'에 비유하여 각 전시실의 테마를 선정하였다.

'태동하는 길'이라는 주제로 시작하는 선사시대실에서부터 각각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표현한 '교류의 길', '충절의 길', '수호의 길'을 지나 '애민의 길'이라는 주제를 가진 근현대실까지 1층에서

금산역사관의 상설전시물들을 관람할 수 있다.

2층에 오르면 세계와 금산의 생활문화를 담은 금산생활민속관이 준비되어 있다. 발을 내딛은 후 처음으로 볼 수 있는 지구촌생활민속실에서는 '세계로의 길'이라는 주제로 전 세계의 다양한 유물들이 전시되어 우리와 세계의 문화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금산, 긴 물 깊은 산의 고장'이라는 주제의 금산전통문화실에서는 금산농악, 금산의 전통조직, 금산의 마을신앙, 금산의 농업에 대해서 금산군민의 기증유물을 중심으로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어 금산 고유의 향토문화를 느낄 수가 있다.

이외에도 VR 체험, 금산 역사 3면 영상, 세계 전통의상 체험, 농작물 키우기 게임, 백령성을 지켜라 게임 등 영상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다.

금산역사문화박물관에서는 상설전시 외에 특별전시와 교육프로그램 등 관람객의 시선을 끌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여름방학 특별 체험 '재미있게 배우는 금산의 역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시실별로 재미있는 퀴즈와 게임을 풀어보고 물총놀이를 진행하기도 하였고 금산역사문화박물관의

첫 특별전으로 현대 분청사기 작가 초대전시가 개최되어 연계 교육프로그램으로 도자기 만들기 체험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앞으로 금산역사문화박물관은 성인 대상 역사 강좌, 문화재 답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금산을 찾아온 관람객들에게 즐거운 문화공간과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산역사문화박물관

주소: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금산로 1575

문의: 041)750-2386



어린왕자문학관을 찾아

논산문화원장
권선옥



몇 번을 거듭하여 읽은 책이 있다. 나의 시를 위해서 『고문진보』를, 직장에서 직분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마키야벨리가 쓴 『군주론』을, 내 마음을 가지런하게 간추리기 위해서 『맹자』와 『어린왕자』를 여러 번 읽었다. 『어린왕자』는 읽을 때마다 다른 느낌을 주었고, 새로운 감동으로 다가온다.

처음 읽었을 때의 감동도 감동이지만,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말들.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아.”,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해.”, “네가 나를 기르고 길들이면 우리 서로 떨어질 수 없게 돼. 난 너에게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사람이 되고, 난 너에게 둘도 없는 친구가 될 테니까.”, “사막은 아름다워.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디엔가 우물이 숨어있기 때문이야.” 등등은 여럿의

가슴에 깊이 묻힌 말이 되었다.

어린왕자문학관은 논산시 가야곡면 삼전리에 자리하고 있다. 책의 내용처럼 아름답고 고즈넉한 곳. 바람이 맑고, 산이 깨끗한 곳이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나는 이곳이 참 좋거든.”하고 어디선가 불쑥 어린왕자가 나타날 것 같은 곳이다. 만일 사람들이 북적대는 저잣거리나 등성등성 자동차의 경적 소리가 들리는 곳은 어린왕자와 어울리지 않는다. 우선 장소 선택부터 설립자의 안목이 돋보인다.

어린왕자문학관에는 1943년에 세계 최초로 발간된 『어린왕자』 영어판과 불어판이 있다. 생텍쥐페리가 프랑스인임에도 최초 발간은 불어가 아니고 영어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73년 문예출판사에서 불문학자 김현

교수의 번역으로 최초 발행되었다. 이외에 54개 언어로 80여 나라에서 발행된 책들이 전시되어 있다. 박재학 관장이 여행을 통해서 직접 구입한 것, 직장 동료가 해외 출장을 가면 구입을 부탁하여 모은 것이다.

“어린왕자문학관을 통하여 어린이에게는 꿈과 상상력을, 어른에게는 잃어버린 순수함과 마음속에 잠재해 있는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설립 취지를 말하는 박재학 관장은 『길 때문에 사라지는 길처럼』 등 여러 권의 시집을 낸 시인이다.

어린왕자문학관

주소: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 원양로 111번길 42



지역민을 위한 힐링파크 핫 플레이스 ‘삼선산수목원’

당진문화원
강대원



당진 삼선산수목원은 최근 지역에서 각광받고 있는 명소 중 하나이다. 2017년 봄에 개장한 삼선산 수목원은 63,000여 평 규모에 각종 꽃과 나무원, 온실, 피크닉장, 키즈꿈의숲, 전망대, 숲하늘길, 생태연못 등이 조성되어 특히 봄, 가을에 많은 나들이객들이 찾으면서 최근 당진의 가볼만한 곳 중 하나로 급부상했다. 이곳은 2010년부터 10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 7년간 조성사업을 진행했다. 삼선산수목원은 수목유전자원을 수집, 증식, 보존, 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 산업적 연구와 시민들에게 여가선용과 자연체험 및 학습장 제공을 위해 만들어졌다.

현재 1,160종 236,290본의 식물유전자원이 전시, 관리되고 있다.

특히나 수종별로 테마를 정해 전시를 하고 있는 것이 돋보인다. 참나무원, 이팝나무원, 자작나무원, 무늬원, 벚나무원, 물푸레나무과원, 침엽수원, 단풍나무원 그리고 당진시의 시화인 진달래와 다양한 철쭉 품종을 전시하는 진달래원 등 총 21개로 분류하여 계절별로 형형색색의 옷을 갈아입는 수목원의 다양한 모습을 연중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전망대와 전망데크 등이 조성되어 있어 가쁜히 산을 올라 탁 트인 전경을 바라볼 수 있는 점도 삼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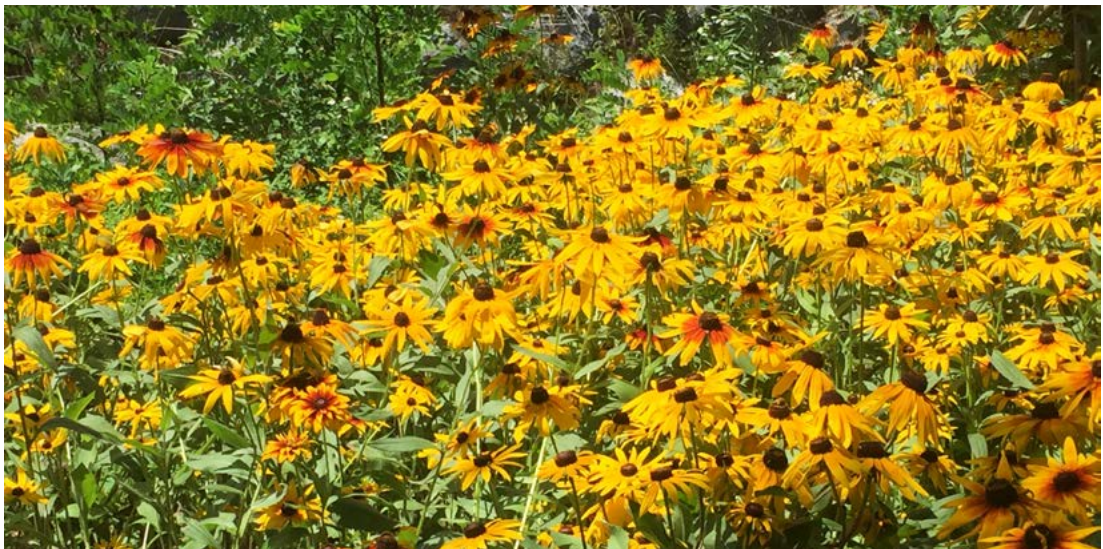
산수목원의 자랑 중 하나이다. 더불어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도 조성되어 있어 눈길을 끄는데 키즈파크의숲이라 명명된 이곳은 자연을 벗 삼아 모래놀이 등을 할 수 있어 가족단위로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하다. 올해 처음 이곳에는 물놀이장이 개장하여 무더위를 피해 많은 인파가 즐겨 찾는 바 있다.

사실 삼선산수목원의 외형은 다른 지역에 조성되어 있는 유명 수목원을 많이 벤치마킹한 느낌이 든다. 또한 올해 유례없는 폭염으로 인해 다양한 식물, 나무

자원을 관리, 유지하는 어려움도 컸다고 한다. 하지만 점점 도시화되고 있는 당진에서 삼선산수목원이 갖는 의미는 지역민을 위한 힐링 파크 이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잘 조성되고 많은 시민들이 찾는 만큼 앞으로도 더욱 유지, 관리를 잘하여 서해안의 대표적인 수목원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해본다.

당진 삼선산수목원

주소: 당진시 고대면 삼선산수목원길 79 삼선산수목원



시인 신동엽 문학관

부여문화원

김인권



시인 신동엽 문학관은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신동엽길 12)에 위치해 있으며 문학관 전면에는 국가 등록문화재 제339호 신동엽 생가가 있다.

이 생가는 한때 타인의 소유가 되었었는데 신동엽 시인의 부인 인병선 여사가 개인재산을 들여 다시 사서 1985년 복원하여 2003년 2월 부여군에 기증하였다. 생가 기증을 계기로 부여군에 의해 2007년부터 신동엽 문학관 건립이 추진되어 2013년 5월 개관되었다.

유명 건축가 승효상 씨가 설계한 문학관은 공사비 36억원을 들여 대지 2,026㎡, 건평 695㎡ 규모에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건립되었다. 지상 1층에는 유족이 기증한 시인의 육필원고 737점과 편지, 사진,

책 등 2,114점의 유품을 전시하는 전시실, 각종 교육과 학술회의를 할 수 있는 세미나실, 북카페로 구성돼 있다.

생가를 거쳐 문학관에 들어서면 부여 출신 임옥상 화백의 설치미술 「시의 깃발」이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는 신동엽 시인의 시가 바람에 나부끼는 형상을 독창적인 방식으로 보여 주는 작품이다. 문학관 로비 정면에는 신동엽 시인 흉상이 놓여 있는데 조각가 심정수 선생의 작품이다. 이 흉상은 부여문화원과 한국작가회의가 주관이 되어 뜻있는 분들(개인 74인, 단체 7곳)로부터 2천만원의 성금을 모아 제작한 것이다.

상설 전시실은 시인의 발자취뿐만 아니라 생활사 박물관이라 해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다양한 유품이



전시되어 있다. 북카페는 역대 신동엽문학상을 받은 작가들의 시집과 사진으로 꾸며져 있어 관람객과 지역주민의 문화사랑방으로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현재 신동엽문학관은 전국의 유명 문인들이 참여하여 설립한 사)신동엽기념사업회(이사장 강형철)가 부여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매년 전국고교 백일장, 찾아가는 버스 문학관, 문학강연, 글쓰기 강좌, 전시회가 열리는 등 개관 5년 여만의 전국의 대표적인 문학관으로 발전하였다.

내년(2019년) 신동엽 시인 작고 50주년을 맞아 학술제, 시극 공연, 전국문학인대회, 마을 문학제, 50주년 기념 책자 발간 등 다양한 사업이 펼쳐질 예정이어서 벌써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시인 신동엽은 백제의 고도 부여가 낳은 위대한 서정시인이자 민족시인이다. 1930년 8월 18일 부여읍 동남리에서 태어나 1969년 4월 7일 39세의 젊은 나이로 서울 동선동 집에서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1959년 조선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하여 10여 년의 짧은 문단활동이었지만, 분단현실 극복에 역점을 두었던 작품들은 지성인에게 신선한 충격과 뜨거운 감동을 주었다.. 특히 장편 서사시『금강』은 민족적 자기 동질성과 인간성에 대한 따뜻한 신뢰, 그리고 굳건한 실천의지의 표상으로서 민족문학의 빛나는 승리 평가받고 있다.

1963년 첫 시집 『아사녀』를 출간한 것을 필두로 사후에 『신동엽시전집』(1975년), 시선집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1979년), 미발표 시집 『꽃같이 그대 쓰러진』(1988년) 등이 차례로 발간되었다. 특히 3차에 걸쳐 개정판이 나온 『신동엽시전집』은 약 5만부, 시선집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는 약 30만 부가 판매되는 등 국민적 필독서로 널리 읽혀지고 있다.

1989년 중학교 3학년 국어 교과서에 시 「산에 언덕에」가 실린 것을 시작으로 현재 18종의 고등학교 문학교과서에 「껍데기는 가라」(14종), 「금강」(1종),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1종), 「너에게」(1종) 등 4편의 시가 실려 이른바 교과서 시인으로도 유명한 분이다.

서산 명종대와 태실 및 비, 보물되다.

서산문화원
김현주



운산면 태봉리에 위치한 '서산 명종대왕태실 및 비'가 3월 26일자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976호로 지정고시되었다.

명종대왕태실 및 비는 조선 제13대 임금인 명종(1534~1567)의 태를 넣어두기 위해 만든 태실과 이를 기념하기 위한 비 3기가 함께 자리하고 있는 대표적인 조선시대 태실유적이다.

시에서는 도지정 유형문화재였던 명종대왕태실 및 비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정밀실측과 심화연구를 추진하였고, 충청남도 문화재위원회를 거쳐 2016년 12월 문화재청에 승격을 신청한지 15개월 만에 보물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조선왕실의 안태(安胎)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태(胎)의 처리가 자손들의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이 미친다는 생각에 태를 중히 여겨왔다. 특히 조선시대 왕실에서는 태 처리를 나라의 국운과도

결부하여 자손이 태어나면 엄격한 절차에 맞추어 태실(胎室)을 조성하고 태를 봉안하였다. 왕의 자녀가 태어나면 왕위계승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태실을 조성하였는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5개월 되는 때,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3개월 되는 때 태를 묻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태실의 조성은 예조(禮曹)의 소관으로 관상감에서 미리 택지한 길지에 등급에 따라 묻었다. 장태지가 정해지면 안태사를 파견하여 백자 향아리에 담아 봉안해두었던 태를 장태지에 안장하며 태실을 조성하였다.

태실은 주인공의 신분과 지위에 의해 아기태실(阿兒胎室)과 가봉태실(加封胎室)로 구분된다. 아기태실은 왕실의 왕자와 왕녀가 태어나면 길지에 장태하여 처음 조성한 태실을 말하며, 가봉태실은 아기태실의 주인공이 후에 왕위에 오르면 아기태실의 봉토와 아기비를 없애고 화려한 석물을 장식하고 가봉비를 세워 가봉한 태실을 일컫는다. 태실은 왕실의 안위를 위해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는

것으로, 민간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금표구역을 설정하고 그 사방 경계에 금표비를 세웠는데, 태의 주인의 지위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대왕은 일등태봉으로 300보, 대군은 이등태봉으로 200보, 왕자는 삼등태봉으로 100보로 태봉의 영역을 설정하였다.

태실이 완성되면 태실지와 산지기를 정하여 태실이 손상되었을 때 보고하도록 하였고, 금표구역에서 나무를 채취하거나 가축을 방목하는 행위 등을 감시하도록 하였다. 고을의 수령은 태봉지역을 수시로 순행하며 관리상태를 점검하였고, 중앙에서도 3년마다 한번씩 태봉관리를 감독할 관원을 파견하여 태실 안위를 위한 제사를 지내기도 하였다.

이처럼 태실로 상징되는 조선왕실의 안태문화는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문화유산으로 가치가 높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대부분의 문화유산이 그러하듯 조선왕실의 태실들도 수난의 시대를 겪었다. 조선후기 전국에 약 130여 곳에 위치했던 태실들 대부분이 일제에 의해 경기도 고양 서삼릉(西三陵)으로 이장되어, 풍수적 관점이 크게 작용했던 태실의 입지적 가치를 비롯한 태실 본래의 모습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명종대왕태실의 현황과 가치

명종(明宗)은 조선 제13대 왕으로 재위기간은 1545~1567년이다. 이름은 이환(李煥), 자는 대양(對陽)이며, 본관은 전주이다. 1534년 중종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1538년 왕실의례에 따라 태를 봉안한 태실과 '대군춘령아기씨태실비(大君椿齡阿只氏胎室碑)' 1기가 건립되었다. 인종(仁宗)의 갑작스러운 승하로 명종이 즉위하면서 태실을 가봉하여 1546년 '주상전하태실비(主上殿下胎室碑)' 1기를 건립하였다. 이후 소소한 개수가 여러 차례 있었으며, 1711년 '주상전하태실비'를 재건하면서 비석 1기를 추가로 건립하여 현재 태실 1기와 비 3기가 전한다.

태실은 8각형의 난간석을 두르고, 중앙에 태실을 배치했다. 태실의 머릿돌은 8각의 개첨석(蓋簷石), 받침돌은 사방석(四方石)이고 몸돌은 중동석(中童石)으로 구분된다.



태실에 봉안되었던 태항아리와 지석(誌石)은 1928년 서삼릉으로 옮겨졌다가 1996년 발굴조사를 통해 수습하여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이전·보관하고 있다.

태실과 함께 만든 아기씨태실비는 비석 받침구멍인 비좌(碑座)와 비문을 새긴 비신(碑身), 비신 위에 올리는 옥개석인 이수(鸞首)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선 전기에 건립된 태실 표석의 전형적인 양식을 갖추었다. 1546년 명종이 왕위를 이어받은 이후 태실을 가봉하면서 건립된 주상전하태실비는 비좌와 비신·이수를 갖추었는데, 비신이 대리석, 비좌는 귀룡대석(龜籠臺石)으로 만들어 위엄을 갖추었다. 1711년 추가로 세운 주상전하태실비는 1546년 조성되었던 본래의 귀룡대석 위에 비신과 이수를 새로 조각하여 건립하고 이전에 설치했던 비는 개수된 비의 오른쪽으로 옮겨서 설치하였다.

조선 왕실의 많은 태실이 본래의 자리에서 옮겨졌거나, 변형된 경우가 상당한 데 비하여 명종대왕 태실은 현존하는 30여기 국왕의 가봉태실 중 형태 뿐 아니라 위치에서도 원형이 완전하게 보존되어 있다. 조선왕실 태실과 태항아리의 전형이 완성된 시기의 태실로서, 웅장한 규모와 우수한 조각수법, 조형성 등 예술적 가치 또한 뛰어난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아기태비와 국왕 즉위 후 가봉태비, 그리고 개수비가 모두 남아 있는 유일한 예로 태실비의 변천 과정까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고, 조선 왕실의 안태문화의 전성기를 보여주는 역사적 자료로 그 가치가 뛰어나 보물로 승격지정되었다.

시에서는 명종대왕태실 및 비의 보물 승격지정을 계기로 석조문화재로서 태실의 보존과학적 관리방안 마련을 비롯하여 전통경관의 회복을 위해 장기적인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서천 이하복고택 전시관

서천문화원
문치운



서천군 첫 공립박물관인 이하복고택 전시관은 올해 11월 8일 개관하였다. 위치는 서천군 기산면 이하복 고택 옆에 위치하고 있다. 전시관은 지하에 자리 잡고 있으며 연면적 357.44㎡ 규모이다. 주요 전시실로 이하복 선생 생활유물실, VR체험실 영상실, 분판체험실, 기획전시실이 있으며, 수장고와 관리사무실이 있다. 전시관에는 삼국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는 총 1476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으며, 그 중 100여점의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희귀본인 목은연보도 소장하고 있다. 야외에는 가마를 타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곳도 마련되어 있다.

이하복 고택(국기민속문화재 제197호)은 조선말 중부지역의 전통 농가구조를 잘 보여주고 있는 가치가 높은 고택이다. 이 고택은 한산이씨 중시조인 목은 이색선생의 18대손인

병식이 19세기말에 안채3칸을 짓고, 20세기 초에 사랑채 등을 새로 지으며 안채도 증축해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이 집은 안마당을 중심으로 안쪽에 대문간이 있는 일자형의 사랑채와 뒤쪽의 안채, 그리고 측면의 광채가 'ㄱ'자형을 취하고 있다. 사랑채의 우측에는 일자형의 아래채가 2칸 정도 떨어져 자리하고 있다. 멋을 부리기 보다는 전형적인 민간기법을 사용하여 검소하고 소박하게 지어졌다. 이하복 선생의 유언인 '왔다 사랑했다 그리고 갔다' 라는 문구가 고택 앞 비석에 새겨져 있다.

청암 이하복 선생은 서천의 교육사업가로 1911년 태어나 1987년에 생을 마감하였다. 고려 말기의 학자인 목은 이색선생의 후손이며, 경성제일고와

와세다대학을 나왔다. 광복이전에는 농촌계몽운동을 전개 하였으며, 광복이후인 1946년에는 사재를 들여 동강고등공민학교를 설립하고 1949년에는 동강학원과 동강중학교를 설립하여 서천의 교육증진에 힘썼다.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국민훈장 동백장에 추서되었다.

전시관은 무료로 개방하고 있으며, 관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예사와 해설사가 상주하고 있다. 또한 서천의 역사와 그 시대의 삶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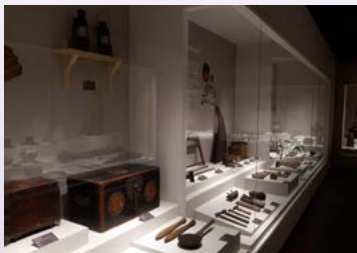
서천 이하복고택 전시관

<관람시간>

- 하절기: 3월~10월 10:00~18:00 (입장마감 - 17:30)
- 동절기: 11월~2월 10:00~17:00 (입장마감 - 16:30)

<휴관일>

-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날 휴관)
- 1월 1일, 설날, 추석
- 문의: 041)951-4741
- 주소: 충남 서천군 기산면 신막로57번길 32-3



아산 맹씨행단과 맹사성기념관을 소개합니다.

은양문화원
김 형 기



가슴이 답답하고 만물에 욕심이 생길 때마다 마음을 다스리려고 맹씨행단에 들리곤 합니다.

조용히 앉아 정승의 고택과 세덕사를 바라보노라면 세상 모든 욕심이 사라지고 정승의 청렴한 기운이 내 몸 가득 들어오는 거 같습니다.

오늘은 청백리의 대명사 고불맹사성 정승의 행단과 기념관을 소개하려합니다.

아산 맹씨행단은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중리에 있는 고려 말, 조선 초기의 정승 맹사성이 기거하였던 사적입니다. 아산시 배방읍 중리 금곡보건진료소 맞은편 골목길로 약 300m정도 올라가다보면 만날 수 있으며 아산 맹씨행단에는 고택, 세덕사, 쌍행수, 구괴정이 있습니다.

아산 맹씨행단의 고택의 건립시기는 고려말로 추정하고 있으며 고택의 중수에 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 『맹씨세적(孟氏世蹟)』 「행단고택중수유래현판게시문(杏壇古宅重修由來懸板揭示文)」에 따르면 고택을 지은 시기가 충숙왕 17년(1330) 2월 17일, 고려말 무민공 최영(崔瑩, 1316-1388)장군이 지은 건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충숙왕 17년은 최영 장군의 나이 겨우 15세 이기에 그 보다도 그의 부친인 최원직이 이곳에 들어와 집을 지었다고 하기도하고 최영 당시의 기록은 전하지 않으며 맹사성의 부친인 맹희도가 기거한 이래 후손인 맹사성에게 물려주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으로 보입니다. 최영의 소유에서 맹씨가문으로 넘어간 배경에

대해서는 최영의 손녀딸과 맹사성의 혼인이 깊은 관련이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고택은 정면 4칸, 측면 3칸이나 정면 가운데 2칸이 반칸씩 안으로 들어간 '工'자형 평면을 구성하고 있으며 맞배지붕 구조이며 세덕사는 정면 3칸, 측면2칸이며 전면 반 칸 옆에 뒷기둥을 세워 벽체와 창호를 설치하여 툇마루 공간을 두고 있습니다.

지붕부는 팔작지붕의 구조이며, 구괴정은 정면3칸, 측면 2칸의 6칸 규모의 정자입니다. 바닥은 모두 마루를 깔았고 기둥과 기둥사이에 창호나 벽체가 없이 모두 개방되어 있으며 세덕사와 마찬가지로 지붕부는 팔작지붕 구조입니다.

고택의 북동쪽에 위치한 세덕사(世德祠)는 맹사성과 그의 조부인 맹유(孟裕), 부친인 맹희도(孟希道) 세 분의 위패를 봉안한 사당입니다.

사당은 후대에 지어진 것이나 최초 건립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며, 이곳에서 매년 10월 10일 송모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구괴정(九槐亭)은 고택 외곽의 담장 밖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고택에서 서쪽으로 난 협문을 통해 나가면 낮은 언덕이 보이는데, 그 위로 구괴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1994년 발간된 『맹씨행단 성역화사업 종합정비 기본계획(孟氏杏壇 聖域化事業 綜合整備 基本計劃)』에는 '지금언터만 남고 정자는 훼손된 지 오래이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당시 정자터의 모습만이 사진으로 남아 있어 최근에

복원된 정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최초의 구괴정의 모습과 건립시기는 알 수 없으며, 구괴정이란 이름은 맹사성, 황희(黃喜, 1363-1452), 권진(權軫, 1357~1435) [맹사성, 황희, 허조(許綽, 1369-1439)라고도 전해짐.]이 함께 이곳에 각각 세 그루씩 느티나무를 심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또한, 세 정승이 이곳에서 시문을 짓고 국정을 논하였다고 하여 삼상당(三相堂)이라고도 합니다. 현재 정자 정면으로 삼상당(三相堂), 내부 전면에는 구괴정(九槐亭)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행단이란 말은 고택의 뜰 안에 600년도 더 된 은행나무(쌍행수)에서 따온 것으로 본래 '행단(杏壇)'은 '공자가 은행나무 아래서 제자들에게 학문을 가르쳤다'는 데서 유래된 말로 일반적으로 학문을 갈고 닦는 곳을 말합니다.

『맹씨세적(孟氏世蹟)』, 『행단고택중수유래현판게시문(杏壇古宅重修由來懸板揭示文)』에 의하면 맹사성의 손자 세마공이 세조 때 이시에 난을 당하여 전라도 순천으로 피란하고 막내아들 호군공으로 하여금 집을 지키도록 하였는데, 이때 기와가 무너지는 변고가 발생해 대대적인 중수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 기록과 함께 묵서명의 내용을 근거로 할 때 성화(威化) 임인년(壬寅年, 1482)에 호군공이 중수를 하였고, 이때 손좌건향(巽坐乾向)이었던 고택 방향이 계향(葵向)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대청 중도리 반침장허 묵서명에 '이전의 좌향은 손좌건향이었다. 향을 바꾸어 입주상향하였다. 이후 계향으로 자리를 옮겼다.'는 기록이 있다). 대청



후측 장도리 묵서에는 정확한 중수내용은 알 수 없으나 임오년(壬午年, 1642) 8월 28일과 갑술년(갑술년, 1754)에도 고택 중수하였다고 한다. 또, 담장에 사용된 기와 중 제작시기가 새겨져 있는 명문기와가 발견됐는데 이 망새기와에 '건륭29년(乾隆二十九年, 1764)' 명문이 새겨져 있어, 이 시기에 개와를 포함한 공사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기록에는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1900년대 이후 중수 기록은 「행단고택중수유래현판게시문(杏壇古宅重修由來懸板揭示文)」에 다시 나타납니다. 호군공의 13세 지손인 면장 맹용순이 단기 4262년(1929)

기사(記事) 9월 9일에 중수하였다는 내용과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1964년 중수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1963년 1월 21일 사적 제109호로 지정된 이후 실시한 1964년의 보수공사는 건물 전면으로 돌출되어있던 부엌칸을 철거하여 지금의 모습으로 바뀌게 된 공사로 이때부터 아래쪽에 관리동(別채)을 짓고 후손들이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고택에서는 사람이 거거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로는 1979년 11월 지붕보수 및 대문채 중수, 1988년 8월 지붕 보수 공사, 같은 해 11월에는 벽체 보수 공사, 1995년 대문채 보수 공사, 1997년 지붕





보수 공사가 이어졌습니다.

맹사성 기념관은 고불 맹사성 선생을 기리기 위해 충남 아산시 배방읍 중리에 설립한 기념관입니다. 고불맹사성기념관은 2017년 6월 1일 개관하였으며 고불맹사성기념관에서는 맹사성 및 신창맹씨 관련 유물 전시 및 관리, 청백리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고불 맹사성 선생 선양사업, 아산 맹씨행단 일상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민족의 대표적 청백리인 고불 맹사성 정승을 알리고 그의 청백리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며, 아산 맹씨행단의 귀중한 역사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교육과 문화관광자원이 상존하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고불맹사성기념관을 설립하였습니다. 대지면적은 4,279㎡, 건축면적은 574.89㎡이며 연면적은 384.12㎡fW으로 건축동은 2개동으로 전시동과 교육동으로 나뉘져 있습니다. 전시동에는 전시관, 영상관, 방문자센터, 사무실 등이 있으며 교육동에는 교육관과 교육준비실이 있습니다.

기념관에서는 국가민속문화재 제225호 전세맹고불유물(專世孟古佛遺物)을 신창맹씨대중회로부터 2018년 1월 15일 기탁받아 보관하고 있습니다. 전세맹고불유물은 명재상 맹사성 선생의 유품으로 전해지며 옥적, 백옥방인, 채석포도문일월연, 수정죽절비녀, 목칠도형배

등 총 5점으로 지난 1990년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옥적(玉笛)은 백옥으로 만든 횡피리이며 대나무를 형상화하여 제작하였고 마디사이까지도 잘 표현하였습니다. 대금과 같이 7개의 구멍이 나 있으나 소리는 다르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에 네 도막으로 부러져 접착제로 잇고 백동관으로 감싸 수리한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채석포도문일월연(彩石葡萄文日月硯)은 연면 주위에 단풍나무, 개구리, 포도송이, 원숭이 두 마리 등을 사실적으로 양각한 베틀입니다.

백옥방인(白玉方印)은 손잡이에 사자가 앉아 있는 모양을 크게 새긴 옥으로 만든 도장입니다. 인면에는 가운데 ‘죽관(竹觀)’이라는 글자를 각각 원 안에 음각하였고, 오른쪽과 왼쪽에는 ‘만산명월(萬山明月)’, ‘일사화풍(一事和風)’을 새겼습니다.

수정죽절비녀(水晶竹節簪)는 유백색 수정을 대나무 아랫부분처럼 다듬어 머리를 만들고 몸통에 구리판을 말아 끼웠습니다. 본래 수정제 끝부분이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졌다고 합니다.

목칠도형배(木漆桃形瓢子)는 해당화의 밑둥치로 만들었으며 안팎으로 옷칠을 하였으며 작은 고리가 달렸던 구멍이 있습니다.

천안의 흥! '천안흥타령관'

천안시동남구문화원
엄 미 나



천안삼거리의 예로부터 북쪽으로 서울, 남쪽으로 경상도인 대구·경주 방향과 서쪽으로 전라도인 논산·광주·목포 방향으로 가는 길이 나뉘는 삼남대로의 분기점으로 알려진 곳이다. 만남의 장소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있다. 바로 술과 춤이다.

역사적 명소인 삼거리 공원 안에 있는 천안흥타령관은 술과 춤이라는 소재를 다양한 유물을 통해 한눈에 볼 수 있게 전시해 놓았다. 천안흥타령관의 전시실은 크게 기획전시실, 전통주관, 명주관, 흥타령문화실 4가지로 구분되어있다. 기획전시실은 매년 다른 주제를 전시하고, 문화교실의 작품전도 개최해 수강생들에게 전시의 기회가 주어진다.

흥타령관의 시작은 2층인 전통주관에서부터 시작된다. 전시관은 따로 섹션이 나누어져있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있어 물 흐르듯이 관람이 가능하다. '흥'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술'이다. 천안의 전통주를 중심으로 재미있게 '술'의 이야기를 전시로 잘 풀어놓았다. 고문서, 누룩틀, 소줏고리 등 전통주 관련 유물 및 자료들을 전시하여 전통주의 역사와 제조과정 등을 알 수 있는 곳이다. 인형들을 통해 옛 삼거리의 모습이나 전통주를 만드는 모습을 재현해 놓아서 관람객들에게 더 쉽게 다가간다.

천안 연미주, 포도주 등 전국의 전통 명주를 전시하여 다양한 전통주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준비되어 있다. 지도를 통해 천안 내의 양조장 분포도를 보여주기도 한다. 옛날의 술병, 잔 등의 전시까지 명주관은 애주가들에게 가장 흥미 있는 전시관일 것이다.

흥타령 문화실로 연결이 되는 길은 역대 흥타령축제의

포스터가 벽에 쭉 붙어 있다. 천안흥타령춤축제는 올해 15번째를 맞이했다. “흥과 함께 살어리랏다” 춤을 주제로 흥타령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천안의 흥을 보여주고자 한다. 한국 전통춤의 정수인 승무를 소개하고 오늘날 그 정신을 이어온 모습, 그리고 세계가 춤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이야기를 궁중무용 의상, 악기, 세계 전통의상 등의 전시품으로 흥타령 전문박물관의 모습이 갖춰져 있다.

천안흥타령관은 삼거리 공원에 자리잡고 있고, 천안박물관 맞은편이기도 하여 삼거리 공원 방문객뿐만 아니라 천안박물관 관람객 또한 방문하기 쉬운 위치에 있다. 천안삼거리공원, 천안박물관 방문 시 잊지 말고 천안 흥타령관을 관람하기를 추천한다.

천안흥타령관

주소 : 31072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412

문의 : 041)521-3461



민족의 발자취를 품고 있는 '독립기념관'

천안시서북구문화원
신 광 식



천안시내에서 21번 국도를 따라 십 여 킬로미터를 달리면 경부고속도로 목천 IC 사거리가 나타나고, 좌측으로 방향을 돌려 도열하듯 늘어선 은행나무 사이 4차선 도로를 따라 조금 더 들어가면 타오르는 햇불 모습의 분수대가 찾아오는 이를 반긴다.

주차장을 가운데 두고 우측으로 한 바퀴 휘돌아서면, 하늘로 솟아 오른 51미터의 상징 조형물이 우리 민족의 비상(飛翔)과 통일(統)의 염원을 담고 있다. 연이어 안쪽을 향해 독립교를 건너면 마침내 '세계에서 가장 큰 동양식 건축물'이라는 본관 건물이 한눈 가득히 들어오고 십만 명이 함께 들어설 수 있다는 독립광장이 펼쳐진다.

이곳이 독립기념관이다. 1982년,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을 규탄하는 국민의 소리가 방방곡곡에서 드높이 울리고 그것이 극일(極日)의 의지로 모아졌을 때 우리는 그러한 뜻의 열매로 독립기념관을 짓기로 했다. 코흘리개 어린이 돼지저금통에서 나온 1원짜리로부터 대재벌의 몇 억원 성금에 이르기까지 모두 4백 96억원이 모여졌다. 6.25때 월남하여 자수성가한 어느 실학민은 굳이 익명을

고집하며 5억원을 선뜻 내놓기도 했으며, 어느 노점상은 성금 접수를 마감한 뒤에 2만원을 보내오기도 했다. 그리하여 순수한 국민의 성금만으로 착공 3년만에 이 크나큰 역사(史)가 이루어진 것이다.

한강에 다리를 하나 놓는대도 5백 여억 원이 든다고 하니, 그 성금만으로 1백21만평의 부지에 기념관을 지으면서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결실을 내기 위해 얼마나 아끼고 애썼는지 가히 짐작이 갈만하다.

독립기념관이 동남향으로 들어앉은 이곳 흑성산 자락은 예로부터 명당으로 이름 높았던 터다. 이 지방 노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조선 정조 때 암행어사로 이름 높았던 박문수가 생전에 늘 "내 죽거든 흑성산에 묻어달라"고 했는데, 정작 죽음에 이르자 "흑성산은 장차 더욱 큰일에 쓰일 명당이다. 그러니 다른 곳에 묻으라"고 유언했다는 것이다.

이곳은 풍수지리로 볼 때도 주변의 산들이 흑성산을 향해 부복하는 형국이어서 명당 중에서도 명당이라고 한다. 실제로 이 자리를 잡은 건립추진위원회 박중국씨는 두 달 동안 전국을 돌며 각 시·도에서 추천된 후보지를 살피다

이곳에 이르렀을 때 첫눈에 명당임을 느꼈다고 한다.

민족의 성전 독립기념관을 들어서면 입구의 상징 조형물에서 그 웅장함에 감탄케 되고, 독립광장으로 넘어가는 독립교의 우아한 자태에 먼저 눈길이 쏠린다. 이 다리는 조선시대 세종 때 놓인 '수표교'를 본떠 완전히 한국의 전통양식으로 놓여진 만큼 난간을 꼭 한번 두드려 볼 만하다. 돌들을 시멘트로 붙이지 않고 하나하나 얹어 올렸기에 조금 흔들리는 듯하지만 빈틈없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놀랍다. 다리 아래의 연지(蓮池)도 바닥을 시멘트 같은 것으로 바르지 않고 완전히 찰흙으로 다졌다고 한다. 독립기념관 최대의 역작이요, 걸작이라면 역시 본관 건물이다. 우리 고유의 맞배 지붕에 현대공법이 가미된 이 집은 높이가 45미터, 좌우 폭이 1백 26미터, 앞 뒤 길이가 67미터이며 용마루 길이가 1백 10미터가 넘어 세계에서 단일 건물로는 가장 큰 동양식 건축물이 되리라고 한다. 중국 북경에 있는 천안문보다도 크다는 이 집의 지붕은 3천 평이나 되어 40개의 돌기둥이 받치고 있는데, 그 기둥 하나의 지름이 2미터 40센티미터에 이른다.

흙으로 기와를 구워 이 거대한 지붕을 덮으려면 날장의 크기와 두께가 엄청나야 하고 건물을 내리 누르는 하중도 대단할 것이다. 그래서 이 집을 지은 사람들은 기발한 착상을 했는데, 4만 2천여 장의 황금 빛 찬란한 동(銅)기와를 써온 것이다. 개관 당시에는 누런 황금빛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붉은 빛을 띠다가 지금은 청동색으로 변하여 육중한 아름다움을 한껏 드러내고 있다.

본관 안의 중앙 홀에는 한국인의 강인한 기질을 표현한 높이 15미터의 석조 '한국인상(韓國人像)'이 있다. 여기에 영롱한 조명과 장엄한 음향이 연출되고 있는데 바라보는 이들 가슴 깊이 민족혼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본관을 지나면 내정(內庭)광장이다. 이 광장을 빙 둘러 한 폭의 병풍을 펼친 듯 6개의 전시관이 서 있다. 이 전시관의 공간을 다 합치면 7천 5백 평이 넘는다.

"독립기념관은 우리의 민족정신과 고유의 전통을 바탕으로 거기에다 현대적 조형미와 건축기술을 한껏 더 한만큼 이 시대의 기념비적 산물입니다" 라는 안내문의 말처럼 이 전시관들은 최적의 상태로 보존되고 있다. 또 천장에 창을 내어 자연의 빛을 최대한 활용하고, 벽면은 자유자재로

전시물들을 걸 수 있는 특수소재로 만들어져 있다.

전시관 끝으로는 민족의 영원성과 미래를 스펙터클한 특수영상으로 비출 원형극장이 자리하고 있는데, 스크린에 9대의 35미터 영사기가 동시에 투사, 그림을 합성하는 최첨단 영화관이다.

이처럼 잘 지은 전시관에 무엇이 놓여 있을까. 사실 독립기념관 건립계획이 확정될 때부터 많은 이들이 건물보다 그 안에 들어앉힐 '알맹이'가 얼마나 실할지 걱정해 왔다. 하지만 그것은 기우였다. 각계에서 여러 자료들이 쏟아져 들어왔는데, 귀중한 사진, 유물, 그리고 실물들이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을 통해, 여러 단체와 무명의 개개인들을 통해 기증되었으며, 연구실 직원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개관 30년을 넘어서 지금은 어느 면으로 보아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자료관으로, 박물관으로, 또한 기념관으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전시관 뒤편은 3천 평의 무궁화동산이다. 그리고 일제시대의 105인 사건을 새기며 1백 5개의 계단을 오르면 좌우가 1백 5미터, 높이가 7미터인 부채꼴 모양의 '추념의 장' 조각과 마주서게 된다. 화강암에 생생하게 부각된 1백 5명의 한국인을 보면서 천지창조로부터 현대에 이르는 우리 삶의 발자취를,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 보는 장소가 되고 있다.

독립기념관, 이곳은 우리의 아픈 근대사를 날날이 비추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암시해 주는 거대한 거울이다. 허나, 우리가 스스로를 비추어 되새겨야 할 일은 일제 치하 35년과 그 앞뒤의 일만은 아니다. 우리에게 반만년 역사의 모든 부분이 소중하다. 여러 곳으로 나뉘어 하나 둘 손실되어 가는 역사의 조각들을 모아 단합된 우리의 힘을 보여주는 장소이어야 한다. 일본이 아직도 그들의 '침략'을 인정치 않고 있으며 신보수주의 물결마저 일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독립을 염원하며 온 몸을 내던진, 목숨 바쳐 조국의 광복을 꿈꾸었던 수많은 독립투사들의 어록(語錄)을 새겨놓은 비(碑)들이 길가 주변에 촘촘히 세워져 있는 기념관내 산책로를 따라 내려서면 누구나 이곳에 독립기념관을 짓기로 한 처음의 뜻을 새기게 되고,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리라.

청양군 목재문화·자연사체험관

청양문화원
강원구



칠갑산 맑은 물을 머금고 있는 칠갑호를 지나 구기자타운에 있는 '청양군 목재문화·자연사체험관'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구)청양목재문화체험장을 시설보강 및 증축하여 지난 5월 18일 개관했습니다. 기존 목재문화 관련하여 전시 및 체험만 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느낌이 들었으나, 자연사체험관이 들어서면서 가족·학교 단위로 즐기기에 다채로운 볼거리가 생겨 본격적으로 사람들의 발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1층에 산림 및 목재에 대한 이해를 돕는 시설이 마련되어있으며 칠갑산휴게소에서 이장복씨가 운영하던 자연사전시관의 전시품도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2층에 올라와 나무놀이터에 가보면 흔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장난감이 아닌 자연친화적인 나무로 만들어진 다양한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도 있고 미끄럼틀과 클라이밍 등 아이들이 키즈 카페를 잇을만한 공간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 옆의 자연사체험관에는 여러 종류의 동물 친구들이 박제 전시되어 있고, 나무공작소에서는 매달 첫째, 셋째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어깨동무 인형극단에서 '인형극 공연 및 재미있는 옛날이야기' 창작동화 공연을 하니 기억해두고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갖는 것도 체험관을 즐기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1층 출구로 나가는 길에 해양 동물 체험관

에서는 닥터피쉬 체험, AR체험, 모래체험 등 아이들이 쉽게 호기심을 가지고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끝까지 아이들을 위해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목재문화·자연사체험관의 이름이 다소 딱딱하고 정적인 이미지로 다가왔을지 몰라도 막상 들어가서 보게 되면 아이들을 위한 체험관으로 재미있고 즐거운 추억거리 만들러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만리포해수욕장

태안문화원
오우리



만리포해수욕장은 태안에서 서쪽으로 12km 지점에 위치하며, 길이는 약 2.5km, 폭 약 270m의 북서방향으로 발달된 사빈이다. 대천해수욕장, 변산해수욕장과 더불어 서해안의 3대 해수욕장 중 하나로 손꼽히며, 북쪽으로 이어져 있는 천리포해수욕장과 함께 태안해안국립공원의 명소를 이룬다. 서해안고속도로를 통해 도심지에서도 비교적 쉽게 찾아올 수 있어 접근성이 좋다. 바닷물이 비교적 맑고 모래가 고우며 경사가 완만하고 수심이 얕아 여름철 해수욕을 즐기기에 더없이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숙박과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여행객들도 불편함 없이 즐길 수 있는 곳이다. 해수욕뿐만 아니라 바닷물이 빠져나가고 난 후 드러나는 해변에서 살아있는 바다생물들을 만나볼 수 있는 갯벌체험, 높은 곳에서 줄을 타고 바다를 건너갈 수 있는 짜릿한 쥘라인 체험, 여름은 물론 겨울철에도 이국적인 풍경으로 캘리포니아를 떠올리게 한다고 하여 서퍼들 사이에서 '만리포니아'라 불리기도 하는 서핑체험, 방파제와 갯바위에서 다양한 어종을 만나볼 수 있는 손낚시, 낮에는 만리포의 넓고 푸른 풍경을, 저녁에는 노을로 넓은 해변이 붉게 물드는 장관을 볼 수 있는 해변

산책로 등 남녀노소 구분 없이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가득하여 여행의 추억을 더할 수 있다.

좀 더 특별한 추억을 쌓고 싶다면 캠핑장을 이용해보는 것도 추천한다. 솔밭에서의 캠핑은 일상생활에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자연과 함께 심신을 안정시켜 줄 충분한 장소가 될 것이다.

2007년 12월 7일.

대한민국 전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었던 기름유출 사고의 최대 피해지역이었던 만리포.

하지만 전국에서 모여든 130만 자원봉사자들과 힘을 합쳐 깨끗한 해변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2017년 9월 그들의 업적을 기념함과 동시에 체험교육의 장으로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이 설립되어 그때의 상황과 과정을 모두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1층은 전시관, 2층은 체험시설, 3층은 전망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건물의 하얀 외벽을 이용하여 빔 프로젝터로 영화를 보여주기도 한다. 특히 전시실은 보고, 듣고,

만지는 체험형 관람 시스템으로 이루어져있어 자연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느껴볼 수 있다.

만리포를 지나 동쪽에는 천리포해수욕장과 세계에서는 12번째,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세계의 아름다운 수목원'으로 인정받은 '천리포 수목원'이 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자 한다면 만리포와 함께 수목원을 방문해보는 것도 좋겠다.

또 다른 해수욕장이 궁금하다면 만리포로 가는 길에 파도리라는 예쁜 이름의 이정표와 마주치게 되는데, 대부분의 서해바다처럼 갯벌이나 모래사장이 아닌 돌맹이들로 이루어져 물이 맑기로 유명하다. 해수욕장 입구에는 알록달록한 해옥을 전시, 판매하는 곳이 있어 기념품을 구매하기에도 좋다.

돌아오는 2019년 여름, 우리 손으로 아름다움을 되찾아준 태안 만리포로 여행을 떠나보자.

출처: 한국사진작가협회태안지부_최경자



토굴새우젓 홍보전시관

홍성문화원
조남민



충남 홍성군 광천읍 웅암리는 예로부터 전국적으로 이름난 <광천장>이 섰던 곳이다. 이 마을 한복판에는 향아리를 닮은 커다란 바위가 있다고 하여 '웅암(甕巖)' 또는 '독 바위'로 불렸고, 이것이 줄어 '독배'가 되었다.

웅암포에 배가 들어오던 1960년대까지 광천은 전국에서 제일 큰 새우젓 시장이 열렸다. 전국 3대 장으로 손꼽히던 광천장을 보기 위해 백 수십 척의 배가 드나들었고, 이로 인해 웅암과 광천 일대에는 장이 끝나고도 3~4일간 술집의 장구소리와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토굴새우젓은 1960년대에 이 마을에서 새우젓

유통업을 하던 윤모씨가 자신의 새우젓을 마을 뒷산의 폐광(도야금광)에 보관해 두고 있었는데 젓갈의 숙성과 보존이 다른 것보다 월등히 우수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같은 사정이 알려지면서 이 주변에 많은 토굴이 생성되었다.

독배에서 취급되는 토굴새우젓은 현재 전국 새우젓 시장의 30~40% 정도인데, 웅암포에 배가 드나들었던 당시 광천에서 집산 가공되는 새우젓은 전국 유통량의 70%를 차지했다고 하니, 그 규모가 대단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광천 토굴새우젓은 천연 자연발효방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양념이 속살까지 배어들어 독특한 맛이 나고, 비타민 미네랄 등의 영양소가 농축된 무공해 자연식품으로 인정받아 김장철이면 전국의 주부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광천 토굴새우젓 홍보전시관은 광천읍 독배마을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으며, 1층은 광천의 역사문화관으로 꾸며져 있고, 2층은 새우젓의 종류와 제조 및

유통에 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새우젓을 사러 광천에 왔다면 꼭 한번 둘러보아야 할 곳이다. 매주 월요일에 휴관하며 관람료는 무료다.

토굴새우젓 홍보전시관

주소: 충남 홍성군 광천읍 광천로 119
문의: 041)632-2913



공주출신 재미교포 기부천사 박형만 선생

정 지 은 _ 공 주 문 화 원

빈손으로 고국을 떠난 지 5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해마다 10월이면 고향의 불우한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자 어김없이 고향땅 공주를 찾아오는 재미교포 사업가 박형만 선생이 있다.

1997년부터 공주문화원에서 '만희복지사업운영회'를 설립하여 올해로 스물두 번째 맞이한 '만희복지사업 생활지원금 수여식'이 지난 10월 23일(화) 오전 10시 30분 공주문화원 강당에서 열렸다.

1937년 공주에서 인쇄소 기술자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1964년 27세의 나이로 서독의 광부로 파견됐다. 3년 뒤 광부생활을 끝내고 미국으로 건너간 그는 기계 청소회사에 취업하면서 막노동부터 시작해 접시 닦기와 잔디 깎기 등 힘든 생활을 거쳐 자동차 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가로 발판을 다졌다. 그는 사업이 번창하자 힘겨웠던 지난 시절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그 고생스러웠던 것이 해마다 고향의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원동력이 됐던 것이다.

만희복지사업회는 자신의 이름인 박형만의 '만'자와 부인 이숙희 씨의 '희'자를 따서 만든 명칭이며 그는 이웃과 함께 잘 살 때야말로 진정한 행복이 실현되는 것은 물론 자신의 존재 이유라고 말한다.

10월 23일 '제22회 만희복지사업 생활지원금 수여식'에 앞서 식전공연으로 공주청소년오케스트라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 이창석 지휘자의 연주와 최창석 공주문화원장과 심규덕 시민국장의 축사와 함께 이용진 시각장애인협회 지회장의 기념품 전달식이 있었다.

수여식에는 공주시 관내 각 읍·면장 그리고 공주시 장애인협회에서 추천한 장애우,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들 40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모두 2천만 원의 생활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날 행사에서 박형만 회장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생을 다한 후에도 자식들이 고향에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사업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고 말했다.



2018 당진사랑 역사문화탐방

강대원 _ 당진문화원



당진에는 많은 기업들이 이주하면서 급격한 인구 증가와 지역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당진사랑 역사문화탐방은 당진으로 이주해온 전입세대 및 지역민들에게 당진에 대해 알리는 한편 지역이 갖고 있는 고유한 성격을 이해시키고자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당진문화원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당진시의 지원을 받아 연 2~4차례 당진 관내 탐방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 초창기에는 학생들과 가족 단위 탐방 신청이 주를 이뤘으나 점차 사업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기업이나 회사 단위 참가 및 당진의 역사를 알고자 하는 일반인들의 참여가 많아지고 있다.

또한 연 2회 이상 참가자가 많아지면서 탐방지의 다변화를 통해 당진의 곳곳을 살펴보는 탐방으로 사업이 진화하고 있기도 하다. 당진을 대표하는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이나 김대건 신부의 생가지 및 솔피성지, 면천읍성, 심훈기념관을 중심으로 하되,

여기에 천주교를 테마로 한 탐방을 계획한다든지 과거 당진의 중심지였던 면천을 근거로 한 탐방, 또 바다를 끼고 있는 당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삽교천, 안섬포구, 한진포구, 마섬포구 등 다양한 테마로 사업이 전개되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올해에는 지역민은 물론 당진에 있는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처음 탐방을 실시했다. 세한대학교 전통연희학과 학생과 신성대학교 유아교육학과 학생들이 참여하여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착심을 고취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된다. 각 학과의 학과장은 매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당진사랑 역사문화탐방을 진행하면 좋겠다는 제언을 먼저 해주기도 했다.

한편 당진사랑 역사문화탐방은 그동안 당진의 역사를 알리는 데서 더 나아가 당진의 관광지 및 축제를 소개하는 방향 전환도 시도했다. 면천진달래축제기간에 탐방 일정을 계획해 면천 지역을 중심으로 탐방을 하고 축제에 참가하였으며 심훈상록문화제 기간에 심훈기념관과 필경사를 둘러보고 오후에는 문화제 현장을 둘러보기도 했다.

어찌 보면 당진사랑 역사문화탐방은 시티투어와 흡사한 방식이지만 단순한 탐방이 아닌 지역 밀착형 탐방으로 앞으로도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당진의 문화와 역사를 알리는데 가교적 역할을 했으면 한다.

모두가 하나 되는 삼꽃 세상

금산문화예술제

손 홍 영 _ 금 산 문 화 원



금산문화원에는 많은 단체들과 회원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물떼기농요’, ‘농바우끄시기’, ‘금산농악’과 같이 금산 고유의 전통문화를 보존하는 단체들에서부터 시를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보여주는 좌도시동인회나 미술동인회인 금동인 그리고 금곡서회, 금묵회와 같은 서예단체와 한국화 단체인 창현회가 있다.

또한 금산의 향토사 정립에 힘쓰고 있는 금산역사 문화연구소, 금산의 노래를 전승하는 풍각쟁이, 금산 연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금산민속연보존회, 주부 풍물단인 나아내풍물단, 주부 시 창작단체 산꽃시동인회와 공무원 밴드인 파랑새, 그리고 금산국악관현악단까지 많은 금산문화원의 단체들과 회원들이 금산문화원과 함께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금산의 문화예술과 함께해 온 것이다.

봄이면 아름다운 산꽃들 사이에서 산꽃축제가 열리고, 여름이면 여울가에서 금강여울축제가 열린다. 가을이면 금산인삼축제가 개최된 후, 찬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만드는 계절이 되면 금산문화원의 모든 단체들과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시간이 다가온다.

바로 금산문화예술제이다. 지난 세월 동안 금산문화예술제는 금산문화원 회원들의 공연과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경험해 볼 수 있는 커다란

문화예술 한마당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하나의 노래를 선정해서 모든 금산문화원 단체의 회원들이 각각의 개성이 묻어나는 합동 공연을 선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때에는 시 동호회인 좌도시와 산꽃사에서 쓴 아름다운 시를 서예단체인 금목회와 금곡서회에서 멋지게 작품으로 표현했으며 미술단체인 금등인과 창현회에서 한폭의 아름다운 그림으로 마무리하여 다 같이 만든 작품을 만들기도 하였다. 우리 전통의 판소리 한 구절로 시작해서 신나는 밴드 음악으로 끝나는 공연은 금산의 문화가

너나 구별하지 않고 한 대 어우러져서 융화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금산의 문화는 경계의 문화라고도 한다. 충청도에 속해있으면서도 전라도와 경계를 두면서 다양한 문화가 스며들어있는 지역인 이유일 것이다. 그렇기에 금산문화예술제는 모두가 어우러지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고 문화와 미술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금산문화 예술제는 매년 가을이 한층 깊어질 무렵 금산에서 경험해 볼 수 있다



논산 청년작가 초대전

김형태 _ 논산문화원

‘청년’. 듣기만 해도 어딘가 가슴 벅차오르는 단어다.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처럼 넘치는 열정과 강인한 체력을 상징해오던 이 단어는 최근 들어 사회적으로 많은 지원과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상징하는 단어로 점차 모습이 바뀌고 있는 듯하다. 그렇다고 그들이 게으르고 못나서가 아니다. 단지 누구나 살다 보면 조금 힘든 시기가 있는 것처럼, ‘청년’이란 계층도 시대적으로 잠시 그런 시기를 겪고 있을 뿐이라 생각된다.

청년 작가들이 한자리에 처음 모였을 때 그들이 서로에게 제일 처음 했던 질문은 “어디에서 작업하세요?”이었다. 작가들조차도 서로 잘 모르고 공유하거나 소통할 만한 자리가 전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문에 논산문화원에서는 지역의 청년들, 그중에서도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39세 미만 논산 출신 청년작가를 지원하여 청년작가 초대전을 기획하였다. 이들에게 작품 전시회를 열어 줄 기회를 주고 나아가서 작품 판매에도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생각보다 많은 작가들이 있었다. 회화, 설치, 사진 등 분야도 다양했다. 전시가 열리기 약 두 달 전부터 작가들은 몇 차례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작업 스타일을 공유하고 함께 전시를 기획하였다. SNS를 통하여 수시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의견을 종합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7월 28일 「제1회 논산 청년작가초대전」을 개최하였다. 다목적홀에서 인디밴드 한나 공연과 11명의 청년 작가 소개 등 간단한 오픈식 이후에 모두 전시실로 이동하였다. 전시실에는 약 40여 작품이 전시되었는데 재료의 차이로 인해 3가지 분야(서양화·동양화·설치미술)로 나뉘었지만 다양한 주제와 각각의 개성 넘치는 스타일의 작품들이 한 자리에 섞여 있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

또한 한 명 한 명씩 작가가 본인의 작품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작품 설명을 하였다. 아무래도 평범한 정물화, 풍경화에만 익숙했던 지역주민들에게 다소 생소하고도 신선한 느낌이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설명에 귀 기울였다. 전시 오픈과 동시에 작품 판매도 이루어졌는데 이는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계획된 것이었기 때문에 작품 옆 라벨에는 작품명, 작가 이름, 규격, 재료뿐만 아니라 가격을 함께 기재하였다. ‘미술작품은 비싸다’는 선입견 때문에 마음에 드는 작품을 보아도 아예 물어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를 허물고자 한 것이다.

이미 준비가 되어있는 청년작가들에게 많은 도움이 필요하지는 않았다.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전시공간을 제공하고 도록 제작, 전시홍보가 전부였다. 그러나 작가들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시립미술관이나 대형 갤러리가 없는 이 고장에서 문화원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논산의 젊고 유능하며 가능성 있는 훌륭한 작가들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판이 펼쳐진 것이다.

일주일 전시회를 마치고 작가들 사이에서 몇몇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공통적으로는 ‘주제’였다. 이번 전시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의 작업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만큼, 향후에는 한 가지 특정한 주제를 정하여서 다 같이 ‘기획전’을 하자고 하였다. 기획전을 하게 되면 분명 더욱 재미있고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건전한 문화가 계속해서 발전된다면 이것을 보고 자란 우리 고장의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실제로 몇몇 작품이 판매되었다. 작품 판매가 기획 의도 중 하나이었던 만큼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인 홍보와 방안을 모색하고 전시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타 지역 청년작가와 교류전이나 가까운 미래에는 해외 작가들과의 교류전도 기대해 본다.

몇몇 작가 추천을 도와 준 논산예총과 첫 번째 논산 청년작가 초대전이 열리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박용진 문화원 고문님께 감사드립니다.



행복하게 노는 동네 예술가들의 모임

김진경 _ 보령문화원



〈어서 해유(함께 해췌, 놀 유遊) - 너, 나 우리의 소확행 - 동네 예술가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2018 충남 생활문화 축제'가 열렸다.

올해 6월부터 실시한 2018 생활문화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보령 문화원 소속 동아리 “은빛지혜교실”을 운영했다. 평균 연령이 75세이지만 참석률은 비교적 좋았다.

평생을 논과 밭 그리고 갯벌을 바라보며 살았다. 이분들로 인해 우리나라가 든든하게 서 나갈 수 있었다. 동아리 모임에 열심히 참석을 하며 즐거움을

누렸다. 은빛지혜교실에 참여하며 책 읽기와 간단한 북아트 만들기는 새로운 체험이었다. 물론 세련된 도시 지역의 정서는 아니다.

10월 20일(토) 아산시 신정호에서 펼쳐지는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 바쁜 가을걷이의 일상들을 부지런히 마쳤다. 평생을 살면서 문화예술 축제를 향유하기 위한 발걸음은 처음이란다. 또 회원 한 분은 최근에 내게 “관광버스를 처음 탔다.”라는 말에 마음이 짠했다.

드디어 축제장소에 도착했다. 도우미로 따라온

마을 부녀회장님과 회원들이 보령문화원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 부스 설치 작업도 하고 행사장으로 향했다. 의식 행사를 모두 마치고 주최 측에서 나눠준 도시락으로 맛있게 식사했다. 문화원 직원들의 친절과 맛있는 도시락과 공연은 달포가 되도록 이야기했다. 내년에도 할 수 있느냐고 물어본다.

드디어 각 시군의 동아리 빅리그 공연을 끝까지 재미있게 관람했다. 아낌없는 박수갈채도 보냈다. 귀에 익은 노래는 어깨춤과 손뼉이 저절로 쳐졌다. 등장하는 동아리 회원들의 나이를 따지기도 했다. 그래서 “우리 회원들도 화장하고 옷도 화려하게 입으면 가능하다.”라고 말하니 ‘좋은 세월 다가고 병든 몸만 남았다.’는 말만 돌아왔다.

도시 중심의 동아리 운영도 중요하다. 이렇게

문화소외지역을 돌아다 봐준 문화원에 감사하다. 물론 기대치만큼의 성과가 없을 수 있다. 생활문화 활성화라는 취지와 ‘너, 나 우리 함께 놀자’와도 부합(符合)된다.

도시와 비도시지역이 문화로 교류하며 손잡고 함께 나아가야 한다. 지역의 문화 수준의 차이가 커서 서로가 힘들 수 있다. 그러나 사는 지역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기에 동네 예술가를 찾아나서는 것이다.

이런 일을 위하여 다각도의 시각과 협조가 필요하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끝으로 “은빛지혜교실”을 운영함으로 좋은 체험을 하고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협조해 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드린다.



네 번째 유홍준 교수 기증유물전 열려

이 미 영 _ 부 여 문 화 원



부여군(군수 박정현)이 주최하고 부여문화원(원장 정찬국)이 주관한 ‘유홍준 교수 제4회 기증 유물전’이 9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여문화원 전시실에서 열렸다. 유홍준 교수 기증 유물전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의 저자이자 전 문화재청장을 지낸 유홍준 명지대 석좌교수가 그동안 연구와 집필을 위하여 사랑과 정성으로 한 점 한 점 모아온 서화 400여 점과 도서 8,000 여권을 지난 2016년부터 금년 봄까지 부여군과 부여문화원에 기증해줌으로써 매년 열리는 전시회이다.

2016년 <백제의 향기와 나의 애장품>, 2017년 <백제의 화가 정성원과 정술원>, 금년 6월 <나의

순백자 사랑>에 이어 네 번째로 열린 이번 기증 유물전은 부여 출신 부자(父子) 서예가로 이름 높은 우당(愚堂) 유창환(俞昌煥, 1870~1935)의 「소창유기」(에서 12폭 병풍), 천경노화(초서), 서론(해서), 선면 시(해서)와 일창(一滄) 유치웅(俞致雄, 1901~1998)의 녹수현여노(초서 8폭 병풍), 이충무공 시(행서), 식분지족(초서), 황진이 시조(행서) 등 작품 50여 점이 선보였다.

이외에 정조 때 명필로 백마강 수북정(水北亭)의 현판을 쓴 기원 유한지의 작품 2점과 살아생전 우당, 일창과 친분과 교류가 있었던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유학생으로 <서유견문록>을 쓴 구당 유길준과

헌법학자로 고려대 총장을 지낸 유진오 박사의 작품이 한점씩 곁들여 전시되었다. 아울러 세 번째로 열린 <나의 순백자 사랑> 전에 출품되었던 백자 100여 점도 다시 전시되어 관심을 모았다.

우당 유창환은 비록 높은 벼슬은 하지 않았지만, 학문이 깊고 문장이 뛰어나며 금석에도 조예가 있어 선비사회, 문인사회에 크게 존송받은 인물이다. 특히 그의 글씨는 각 체에 두루 능하였는데, 초서에 뛰어나 초성 또는 추사 이후의 '일인자'라 칭송받았다. 일제 강점기의 <조선미술전람회>에 여러 번 입선하였고, 많은 작품과 함께 「한규설 묘표」 등 다수의 묘비와 묘지명을 남겼다. 지난 1976년 개인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국립현대미술관 주최로 회고전이 열리기도 했다.

우당은 서예가 이전에 독립운동가로 3.1 운동 후 허위 선생과 함께 의병을 조직하려다 일경에 체포되기도 하였고, 고향 부여에 학교를 설립 이상재·유진태·남궁훈 선생과 조선교육협회를 창립 활동하였다. 또한, 서예 작품을 팔아 만주의 독립군을 위해 은밀히 독립자금을 마련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우당의 아들 일창 유치웅은 부친의 뒤를 이어 초서에서 당대의 대가로 존송받아 국전 초대작가, 심사위원을 맡았으며 인품과 학식이 높아 정부수립 후에는 감찰위원회(지금의 감사원) 이사관, 감찰관을

역임하였고, 오랫동안 명지학원 이사장을 지냈다. 국립현대미술관, 예술의 전당 등 주요 미술관에서 여러 차례 초대전, 회고전이 열린 바 있다.

10여 년 전부터 화랑가에서 두 서예가의 작품을 수집해 온 유교수는 “우당과 일창의 서예 작품은 미술계에서 높이 평가되어 이미 국내의 주요 미술관에서 초대전, 회고전 등이 열리면서 두 분의 예술세계를 끊임없이 기리고 있지만 정작 고향인 부여에서는 작품을 볼 기회조차 없어 전시회를 마련하게 되었다.”라며 전시회를 연 배경을 밝혔다.

이번 우당 부자의 서예전에 대해 이동국 예술의 전당 서예박물관 수석큐레이터는 “부자간의 전시는 1996년 예술의 전당 서예관에서 열린 <역매 오경석·위창 오세창 양세 유묵전> 이후 처음일 정도로 20세기 근현대 서단은 물론 예술계에서 조차 드문 사례다.”라며 높이 평가 하였다.

서울 출신인 유홍준 교수는 2006년 부여군 외산면 반교리에 휴휴당(休休堂)을 짓고 서울에 5일, 시골에 2일 거주하는 5도 2촌을 실천하면서 부여군민이 되었고, 부여를 제2의 고향으로 삼았다. 그리고 2009년부터 봄, 가을에 걸쳐 연 4회 부여의 주요 문화유적지를 탐방하는 '유홍준과 함께하는 부여답사'를 10년째 진행해 오는 등 부여군 홍보대사로 활동해 오고 있다.



『사암(思庵) 류숙(柳淑) 선생 재조명 학술연구』 학술발표회 개최

이 용 배 _ 서 산 문 화 원



서산문화원(원장 이준호)은 지난 2018년 9월 6일(목) 서산문화원 공연장에서 『사암 류숙 선생 재조명 학술연구』 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서령(서산)류씨 종친회의 후원으로 서산문화원에서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서산시민과 각지에 흩어져 있던 서령류씨 종친회원 등 150여명이 참석하여 큰 관심을 보였다.

사암 류숙 선생은 서산 출신의 고려말 공민왕대의 문신으로 당대의 뛰어난 유학자이자 정치가였다. 류숙 선생의 생애와 가계, 관련 유물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통해 선생의 고려 정치사에서의 역할과 서산지역의 역사적 위상을 재조명 하고자 이번 학술연구를 추진하였다.

임선빈(한국학중앙연구원), 도현철(연세대학교 사학과), 이해준(공주대학교 사학과) 교수가 각각

주제발표를 하였으며, 윤용혁 교수(공주대학교)를 좌장으로 곽호제 교수(충남도립대), 이정신 교수(한남대학교), 류용두(서령류씨 종친회)씨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또한 이날 참석한 시민들도 다양한 질문을 던지며 류숙 선생의 위상과 활동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학술발표회 종료 후에는 참석자들이 함께 성암서원, 신도비 등 서령 류씨 관련 유적을 답사하여 그 뜻을 더욱 기렸다.

이준호 서산문화원장은 “이번 학술발표회를 후원해준 서령류씨 종친회장과 회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미진했던 류숙 선생에 대한 학계의 연구가 이번 기회로 정립이 되었으면 하며, 선생이 재조명되어 선창될 수 있도록 문화원이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행사의 소감을 전했다.

제33회 전국향토문화 공모전 우수상

문치윤 _ 서천문화원

서천문화원은 2018 전국향토문화공모전의 지방문화원 향토문화연구실적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작년 대한민국 문화원상 최우수상을 수상한데 이어 전국공모전에서 두 번째 상을 거머 쥐었다.

우리문화원은 이번 공모전에 총 34개 사업의 실적(2015~2017)을 제출하였다. 지역의 면지발간, 성씨 뿌리찾기사업, 서천의 문화콘텐츠 발굴과 향토문화 창달을 위한 다양한 행사들이 향토문화발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받은 것이다.

면지발간은 현재 13개 읍면 중 7개 읍면지가 발간되었다. 각 마을의 인물과 문화자산, 마을 사람들의 생활을 한권의 책에 담았다. 성씨뿌리찾기 사업은 지역을 위해 힘써온 성씨들을 대상으로 가문의 주요 인물과 유적, 서천지역에 끼친 영향 등을 책으로 엮어 발간하고 있다.

문헌서원과 함께 서천을 대표하는 건암서원의 복원 계획에도 힘쓰고 있으며, 한국최초성경 전래지인 마량진의 학술적 가치에 대해서도 연구 중이다. 서천의 중고제 역시 문화원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 중 하나이다.

서천지역의 향토작가들을 초청하여 여는 초대 작가전이 있으며, 지역의 대표시인인 신석초시인을 기리는 신석초문학상 또한 3회째 진행되고 있다.

서천문화원은 최근 서천학 책자를 발간함과 동시에 강좌도 진행하였다. 총 60여명의 수강생이 수업을 들었으며, 서천의 역사, 문화, 생활, 자연 등 다양한 분야를 총 망라하여 다루었다. 서천학 심화 과정을 만들어 강사를 양성할 계획이다.

서천문화원은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문화 콘텐츠발굴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할매 할배 인생은 빠담~ 빠담~

이 명 숙 _ 은양 문화원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은 우리지역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 지원하여 지역의 문화 예술 참여 및 커뮤니티를 활성화 하고자 노력하며, 고령화 시대에 활기찬 노년 문화를 창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올 4월부터 수업을 진행하였다.

이 사업은 은양문화원, 충남문화재단이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후원하는 사업으로 충청지역 최초로 시행하는 장구난타 프로그램은 경쾌한 현대가요 및 민요, 율동을 장구 장단에 접목하여 생동감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리듬으로 우리 지역 최초로 선보이게 되었다.

2015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4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어 인형극, 마당극, 마당악극, 올해는 장구 난타 수업으로 어르신들이 대상이며 총 30회 수업과 현장학습을 실시하였다. 빠담 빠담은 불어로 “심장 뛰는 소리 두근 두근”이란 뜻으로 장구난타를 두드릴때의 소리가 심장 박동소리와 가장 유사 하다 해서 “할매 할배 인생은 빠담 빠담”이란 사업명을 사용하게 되었고, 이 수업을 진행하여 은양문화원 홍보는 물론 다양한 성과를 거두는 해가 되기도 하였다.

2016년 아산시 개최 제97회 전국체전과 외암민속 마을 짚풀문화제 행사에서 선보인 장구난타는 드럼통과 북을 이용하는 일본 문화의 성향이 강한



난타와는 사뭇 다르게 장구를 이용한 난타로 한국적 문화생활에 적합하기도 하며, 고전의 풍물 악보를 활용하여 가락을 배우기가 쉽고 두레의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는데 뜻이 있기도 하다.

장구난타는 기본자세 및 기본 타법을 이해하며 궁채와 열채 잡는 방법의 이해와 몸동작으로 표현하여 우리 고유 민요인 ‘태평가, 달타령과’, 현대 가요로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아, 아리랑 목동, 사랑의 트위스트’곡을 접목 완성하여 신명나게 두드려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동아리 구성과 함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수업의 일환으로 서울에 있는 명동 난타극장을 찾아가 탄탄한 스토리와 배우들의 흡입력 있는 퍼포먼스 공연 관람을 실시하여 타악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그 속에서 수강생들의 사기진작과 아이디어 창출에 도움을 주었으며, 흥과 멋이 함께 살아 숨쉬는 장구난타반 수강생들의 적극적인 표현력으로 끈임 없이 웃음꽃이 피어나고 행복을 주는 반으로 거듭나기도 하였다.

수강생 한분 한분마다 열정과 끼가 넘치고 인정이 넘쳐 장구난타반은 늘 먹을거리가 넘쳐난다. 떡볶이를 냄비 채 해와서 나눠 먹고, 여름에는 수박과 참외로 가을철에는 몸보신 되는 염소 육계장(?)과 곶절이로 정을 나누고, 서로 서로 다독이고 칭찬하며 나눠 먹는 분위기가 영락없는 여느 시골 장터 국밥집 냄새가 난다.

열정과 끼가 없으면 박진감 넘치는 리듬을 타는

장구난타반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만큼 활동량도 많다. 수업에 매진하다 보면 시작 10분도 채 안되어서 땀으로 범벅이 될 정도로 열심히고 연말이 되니 입소문이 돌아 벌써부터 초급반 모집해 달라고 아우성들이다.

올해 장구난타반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으로 2018천안흥타령 춤 축제에 참가하여 비록 수상은 못하였지만 큰 무대에 올라 공연을 하였다는 것에 대한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꼈으며, 제4회 아산시민생활문화 한마당 경연대회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하여 상금 80만원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아산시평생학습한마당 발표회에서 아산시장상 장려상을 수상하였으며, 충청남도 동네 방네 문화로 청춘 공연에도 초청되어 큰 무대에서 공연을 하여 어르신문화프로그램 홍보와 함께 할매 할배 인생은 빠담 빠담을 홍보하는 기회가 되었다. 아산시 은행나무길 축제 공연 참가, 지역의 축제장에 초청되어 재능기부를 하는 등 다양한 공연을 펼쳤으며, 올 해 계기로 내년에는 장구난타 공연만이 아니라 콜라보를 하여 더욱 색다르게 표현하고자 한다.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을 마무리하며 ‘장구난타’란 새로운 악보 습득과 교육과정을 통해 그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한해가 되었으며, 앞으로 문화예술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어르신들의 행복한 삶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천안시동남구문화원 개원 60주년 기념 제34회 단오축제

엄 미 나 _ 천안시동남구문화원

천안시동남구문화원이 주최하는 개원 60주년 기념 제34회 단오축제가 6월 21일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공영주차장에서 개최되었다.

지역 내 여러 내빈 및 기관단체장들이 참석해 주었고 지역민들이 행사장에 마련한 약 800여석의 의자에 빈자리 없이 메워주었다. 올해는 예년보다 늦은 단오로 더운 날씨에 진행되었지만, 많은 성원과 협조 덕분에 성황리에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옛 단오에는 신하들이 단오첩을 임금께 올리고 부채를 만들어 진상하면, 임금이 이를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 단오축제는 특별히 더운 날씨에 축제를 보다 시원하게 즐길 수 있도록 부채를 준비하였다.

축제에 앞서 흥을 돋우는 악기 연주 3팀의 공연 후, 단오 제례를 가졌다. 천안시의 발전, 천안시민의 건강과 행복, 아우내장터의 번성을 기원했다. 올해는 이전의 단오축제에서 볼 수 없던 60주년을 기념하는 풍등을 날리는 행사와 문화원을 위해 열심히 힘써준 분들을 위한 표창패와 감사패 전달식도 가졌다.

화합의 줄다리기를 시작으로 내빈과 관계자, 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자리로 축제의 막을 열었다. 특히 무술년인 올해, 문화원 이사인 송천 신열목 작가의 대형 붓 60주년 축하 퍼포먼스가 있어 재미를 한층 더했다. 또한 60주년에 맞춰 60m 떡을 준비했다. 축제 참가자들이 모두 모여 떡을 자르고 서로 나누어 먹는 재미까지 있어 웃음꽃이 끊이지 않았다.

개회식이 끝나고 본격적인 축제의 막이 올랐다. 풍물단을 비롯한 민속공연, 지역가수, 각설이, 밴드,

한국민속무용, 난타까지 7팀의 공연이 계속되었다. 무대가 진행되는 동안 한쪽에 준비해놓은 떡메치기, 투호놀이, 널뛰기, 윷놀이, 제기차기 등 전통민속 놀이에 대한 관심도 끊이지 않았다.

단오축제를 통해 천안시민의 안녕, 전통민속놀이 계승 발전을 바라면서 60주년을 맞은 천안시동남구 문화원이 더욱더 발전하길 빌어본다.



한 편의 동화같은 멜로디 청양문화원 다올소리 오카리나

강원구 _ 청양문화원



매주 월요일 늦은 오후에는 다올소리 오카리나 동아리 회원들이 동아리실 문을 열어달라며 수줍게 사무실에 들어오십니다. 수업 시작은 6시부터지만 늘 한결같이 1~2시간 일찍 나오셔서 미리 연습을 하시면서 대전에서 오시는 강사님을 기다리십니다. 2013년 '청양 챔버 오카리나 앙상블'이란 명칭으로 활동하였으나, 작년부터 하는 일마다 모두 복이 되어 돌아온다는 순우리말 '다올'과 '소리'를 붙여 지은 다올소리 오카리나로 명칭을 변경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10명으로 각자 하고 있는 일도 다르지만 아기자기한 오카리나를 잡고 연주할 때만큼은 한 편의 동화같은 멜로디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동심을 자아냅니다.

바쁘게도 불구하고 지역 내 요양원에 봉사할 기회가 있다고 부탁드리면 열일 제쳐두고 참여하여 어르신들에게 맑고 청명한 소리로 큰 힘을 드리고 오곤 합니다.

오카리나 연주자들이 갖고 닦은 실력으로 검증

받는 '오카리나 전문지도자 1급' 자격증 시험이 있는데, 랭글리 오카리나, T자형 AC오카리나 스케일, 트리플 오카리나 등 총 5가지 곡을 통과해야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정확한 악기의 운지법 능력과 곡의 소화능력을 검증하는 어려운 시험에 다울소리 오카리나 회원 중 3명이 통과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이는 변함없이 성실하게 연습하고, 배우고, 봉사활동을 통하여 익힌 실력이 1급의 수준까지 향상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번 6월 8일~9일 2일간 대전 평송 청소년문화센터 & 예술의전당 원형극장에서 펼쳐진 오카리나 국제 페스티벌에 회원들이 참가했습니다.

개막과 폐막 공연인 빅콘서트에서는 일본의 유명 오카리니스트 혼야 미카코(Honya Micaco)와 함께

300인이 펼치는 오카리나 마치(Ocarina March) 연주에 우리 회원들도 같이 협주하여 환상적인 조화를 이룬 하모니는 정말 멋졌습니다. 그리고 예술의전당 원형극장에서 펼쳐진 세계 최대 규모의 오카리나 7중주 대합주인 500인 합주에도 참여하여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우리 다울소리 오카리나의 장점은 회원들이 수가 적어도 단합이 잘되며, 색소폰과 통기타 등 다른 악기와 협주를 할 경우에 남들이 보기에는 화려하거나 멋진 스킬이 보이지 않는 악기지만 협주를 더 빛나게 감초 역할을 하는 게 오카리나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변함없는 열정을 가진 다울소리 오카리나 회원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서해안 섬 기행

이 용 석 _ 태안 문화원



태안군은 충남의 서해안 태안반도에 있는 군으로 인구 6만의 지리적·문화적 변방의 작은 소도시이다. 안면도를 비롯해 190여 개의 섬과 530km의 해안선을 따라 펼쳐지는 크고 작은 해수욕장, 다양한 생태계를 보존하고 있는 갯벌, 사구 등 아름다운 풍광은 ‘관광 태안’이라는 명성으로 수많은 관광객의 발걸음을 맞이한다.

이에 태안문화원은 지방문화원 활동사업의 일환으로 ‘서해안 섬 기행’을 진행하며 우리지역의 문화와 자연환경을 비교·관찰하며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작년 홍도·흑산도 탐방에 이어 올해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1박2일로 ‘신비의 섬 백령도 문화기행’이라는 주제로 백령도를 탐방하였다. ‘섬’이라는 특성상 변화무쌍한 날씨가 염려였지만 하늘의 도움으로 다행스레 무탈히 아름다운 풍광을 감상할 수 있었다.

서해 최북단 백령도는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속하며 우리나라 섬 중 가장 서쪽에 위치하는 섬으로 14번째 큰 섬이었으나 바다를 메워 백만 평 정도의 땅이

생기면서 현재는 여덟 번째 큰 섬이 되었다. 날씨가 좋으면 북녘 땅이 보일만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섬으로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섬이기도 하다. 또한 고려의 충신 이대기가 '늪은 신의 마지막 작품'이라 표현 했을 정도로 절경을 자랑하는 백령도의 때 묻지 않은 자연 경관을 감상해 볼 수 있다.

우리는 인천항을 출발해서 소청도와 대청도를 거쳐 백령도까지 3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다. 백령도에 도착 후 중식을 먹고 먼저 심청각과 백령도 유람선을 관광하였다. 심청전의 배경무대인 백령도는 심청전 중 심청이 아버지 눈을 뜨게 하려고 몸을 던진 인당수와 심청이 환생했다는 연봉바위가 바다를 보이는 곳에 심청각이 있다. 두무진 포구에 도착해서 유람선을 타고 감상을 하였다. 예로부터 '신이 빚어 놓은 절경'이라 찬사를 받아 온 곳으로 해안을 따라 기암절벽이 약 4km 길이에 걸쳐 위풍당당하게 서서 여행자들을 반겨준다. 유람선을 타고 해안을 따라 돌면 형제바위와 선대암, 바다에서 수직으로 99m나 솟아오른 병풍바위, 코끼리바위 등의 비경을 감상할 수 있다. 누구나 외마디 탄성으로 마주하게 된다. 수억 년 동안 파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기암괴석에서 눈을 땔 수가 없었다. 모든 관광객은 흑여 농칠세라 동영상을 찍고

카메라 셔터를 누르며 탄성을 자아냈다. 이튿날 천안함 46용사 위령탑·백년역사의 중화동 교회와 콩알만한 자갈들이 해변에 널려 있는 콩돌해변을 관광하고, 사곶 해변으로 갔다. 사곶해변은 세계에 두 곳밖에 없다는 구조토 해변으로 비행기 이착륙이 가능할 정도로 단단한 모래해변이다. 마지막으로 용기포 자연동굴을 관람 후 중식을 먹고 기행을 마쳤다.

많은 섬들을 여행했지만 백령도처럼 어떤 의미와 긴장감을 느끼며 여행하기는 드물다. 북한과 가깝게 있기도 하고 천안함 사건으로 장병 46인이 순국한 곳이라 더 비장한 마음이 들기 때문이다. 이번 백령도 여행을 통해 마음속에 많은 의미를 담으며 함께 했던 분들과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었다.

19세기 미국 의과대학 교수였던 대니얼 드레이크(Daniel Drake)는 “약 상자에 없는 치료제가 여행에는 있다. 여행은 모든 세대를 통틀어 가장 잘 알려진 예방약이자 치료제이며 동시에 회복제이다.”라고 말했다. 여행은 상상만으로도 설레게 만든다. 그의 말처럼 지금까지 바쁜 일상에 쫓겨 지친 우리의 심신을 치료하고 생활의 활력을 얻는 하나의 처방으로 자신에게 잠시 심포의 치유를 선물하면 어떨까?



문화의 날 기념, 홍성군민생활문화한마당

정선영 _ 홍성문화원



2018 문화의 날을 기념하는 홍성군민생활문화한마당이 지난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홍성문화원 1층 공연장 및 야외무대에서 홍성군내 기관단체장과 문화예술인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 홍성군민생활문화한마당은 문화의 날을 맞아 지역 내 소외된 생활문화동호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마당 화합잔치를 통해 숨겨진 끼와 재능, 재주를 마음껏 선보이는 생활문화동아리 축제로서, 소규모 문화공연을 통해 지역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며 지역의 문화예술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20일에 문화의 날 기념식과 지역문화예술동아리 문화공연이, 21일에 홍성군립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황선미 작가의 북콘서트와 해바라기 초청공연이 다채롭게 펼쳐졌다.

첫째 날에는 오전 11시부터 식전공연 내포파르렛의 연주를 시작으로 기념식이 진행됐고,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한 문화예술인 이봉연과 서준원씨에게 공로패를, 임기숙과 조덕행씨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기념식에 이어 오후 1시부터 4시 30분까지는 홍양풍물단과 한소리풍물패의 풍물, 달빛 아코디언, 아모로스 플룻 앙상블, 첼로 포에버, 홍성 하모사랑,

파랑새 오카리나 앙상블, 꽃가람 무용단, 어쿠스틱 노네임, 노래교실, 문화누리 북두칠성의 난타, 달빛 색소폰, 가야소리의 가야금 병창, 홍주기타랑 등 다양한 장르의 생활문화예술동아리 14개 팀이 참여한 신명나는 무대가 펼쳐졌고,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다음 둘째 날에는 오후 3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홍성 구향 출신 <마당을 나온 암탉>의 저자 황선미 작가와 홍성군립오케스트라 연주가 함께하는 북콘서트가 진행됐다. 이후 저녁 7시부터 9시까지는 70년대 포크음악의 계승자이자 80년대 최고의 포크그룹이라 불리는 해바라기를 초청한 라이브 콘서트가 열렸다.

이날 콘서트에서 해바라기는 <행복을 주는 사람>, <모두가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등 아름답고 따뜻한 가사와 곡들로 삶에 지쳐있는 지역민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면서 큰 호응과 많은 박수를 받았다.

한편, 유환동 원장은 “정부에서는 1973년부터 문화의 날을 지정해 기념하고 있지만 정작 홍성에서는 이렇다 할 행사가 없어 아쉬웠다”며 “수많은 문화예술인을 배출한 홍성에서 45년여 만에 처음으로 기념행사를 갖게 돼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문화의 중요성과 군민들의 문화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행사가 문화예술이 살아 숨 쉬는 홍성 알리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타이문화의 시작, 푸른하늘의 도시 치앙마이. 자본주의의 물살을 탄 라오스에 다녀오다

서산문화원 김현정

지난 5월 9일부터 13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도내 문화원 사무직원 선진문화연수에 참여했다. 늦은 밤 도착한 태국의 치앙마이 공항은 한산한 기차역 같은 분위기에 다소 습하면서 풀내음 가득한 공기로 가득했다. 우리나라 시골에서 여름철 자주 맡아지는 냄새와 닮아 낯선 이국땅이 한결 친근감 있게 다가왔다.

태국은 동남아시아의 인도차이나반도 중앙부에 자리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2.3배에 이르는 넓은 영토를 갖고 있다. 동남아시아가 그렇듯 고온다습한 열대성 기후이며 넓은 영토의 반 이상이 산림이고 주농산품인 벼를 이모작 재배하고 있다. 한마디로 먹기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의 주여행지인 치앙마이는 태국 북부에 위치한 전원도시로 해발 300m에 위치해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선선한 기후이다. 란나왕조의 두 번째 수도로 타이족의 원조이며 타이문화의 시작, 북방의 장미라는 여러 별칭으로 불리 올 만큼 깊이 있고 다양한 문화유산과 풍요로운 자연환경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최근에야 알려지기 시작했지만 세계는 치앙마이를 마력의 도시라 부르고 있으며, 특히 유럽인들에게는 노후를 보내고 싶은 도시로 손꼽힌다고 한다.

'치앙'은 푸른하늘의 도시, 즉 청정지역의 의미이며 '마이'는 새롭다는 뜻을 갖고 있다. 이름만으로도 도시의 이미지가 상상될 만큼 멋지고 그곳에 잘 어울리는 이름인 것 같다.

황금 탑 왓 프랏탓 도이수텡

치앙마이를 대표하는 사원 중 황금탑으로 유명한 왓 프랏탓 도이수텡으로 향했다. 태국민의 90% 이상이 불교를 믿는 만큼 태국의 문화는 불교문화를 떠나 이야기할 수 없다. 생활양식부터 가치관, 세계관에 이르기까지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태국여행에서 사원은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중 처음 방문하게 된 왓 프랏탓 도이수텡은 해발 1,180m의 산속에 위치한 사원으로 란나왕조시절 부처님의 사리를 운반하던 흰코끼리가 이곳 수텡산까지 올라 부처님의 사리가 모셔졌다고 한다. 300개의 계단과 계단 양쪽의 나가킨(머리 4개 달린 뱀의 형상)을 볼 수 있다. 힌두문화의 영향으로 볼 수 있는 나가킨은 지상과 신의 세계를 잇는 뜻을 담고 있어 아래쪽에 머리를, 사원이 위치한 상단에 꼬리를 두고 있다. 계단을 오르면 천장 없는 불전 한가운데 웅장한 황금탑과 주변으로 황금우산모양을 볼 수 있다. 탑주위로 황금 불상들이 둘러있어 그 화려함을 더했다. 꽃을 들고 탑을 도는 사람들을 따라 맨발에 두 손을 모으고(꽃은 어떻게 준비하는지 차마 묻지 못했다) 고국에 있을 가족의 건강을 빌어 보았다. 우리나라의 탑돌이와 비슷하다. 꽤 넓은 사원을 돌아보는 내내 맨발로 다녀야 하는 게 다소 낯설고 불편했지만 현지인들은 돌바닥에 자연스럽게 절을 하고 꽃을 올리고 탑을 돌았다.

불전 둘레의 벽화에는 석가모니의 태몽부터 성불하는 모습에 이르기까지 이야기처럼 나타나 있으며, 그곳을 보고 내려가면 여러 개의 종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모두 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여 작게 두드려 보았다. 인간의 소원성취를 향한 바람은 모든 종교와 국가를 초월하는 것 같다.



라오스 경제특구

태국, 미얀마, 라오스의 접경산악지역으로 마약왕 쿤사의 활동지로 유명한 골드트라이앵글을 거쳐 배를 타고 라오스로 이동했다. 특별한 입국 절차 없이 여권을 내고 신분증을 대신하는 'VIP'라고 적힌 목걸이를 받았다. 현지가이드의 말에 따르면 우리나라 관광객만의 특별대우라는데, 우리나라가 정부 차원이든 민간 차원이든 그곳에 많은 투자와 지원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는 경제적 잠재력이 큰 메콩강 유역 개발지역인 경제특구(현지가이드 표현)의 카지노로 향했다. 개발의 흔적이 많은 만큼 활발한 에너지가 흐르는 곳이다.

중국, 일본, 한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개발을 지원하고 있어 하루가 다르게 건물이 세워지고 그로 인해 주변국 인력이 모여들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6년 정상회담을 통해 많은 분야의 MOU를 체결하고 새마을운동사업, 친환경사업 등을 전수하며 개발에 참여해왔다. 현재 개발사업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으로 인해 메콩강유역의 라오스 시간은 중국 시간으로 흐르고 있다. 중국인 오너와 관리자, 상업을 하는 태국인과 미얀마 노동자가 어우러져 살아가는 독특한 곳이기도 하다.

중국식 저녁을 먹고 외곽에 위치한 미얀마촌으로 향했다. 미얀마촌은 라오스로 건너온 노동자들이 모여 이룬 촌락이다. 마치 미얀마를 옮겨온 듯 그들의 생활양식 그대로 살고 있다고 한다.

울퉁불퉁한 흙길, 낮은 지붕과 좁은 가게, 자전거 탄 사람들, 곳곳에 피어오르는 연기, 노점상 등 우리나라 70년대의 모습과도 닮은 풍경 속에서도 그들만의 천연 자외선 차단제 타나카를 하얗게 바른 얼굴과 남자들이 두른 듯 입은 긴치마는 그들만의 색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일을 마친 저녁 그들의 시간은 지침과 피곤함보다는 웃음과 편안함, 순박함 속에서 활기차게 흐르고 있었다. 아마도 그들에게 라오스는 희망의 땅이 아닌가 싶다. 메스컴을 통해 보았던 우리나라의 70년대가 떠올라서인지 마을의 모습이 오래토록 남을 것 같다.

치앙마이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건너온 우리는 치앙라이를 거쳐 치앙마이로 가는 버스에 올랐다. 이동하는 동안 거친 도시와 마을을 보면 셀 수 없이 많은 사원을 보게 된다. 마을에서의 사원은 학교의 역할은 물론 병원, 장례식장, 집회소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태국의 남방불교는 소승불교(小乘佛敎)라고도 일컬어지는데 우리나라 대승불교와 달리 고행을 통해 자기 자신을 깨닫는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윤회를 믿는 만큼 공덕을 쌓는 걸 중요시여겨 불자들의 행동 역시 우리와는 차이를 두고 있다. 이동하며 느낀 또 다른 특색은 거리 곳곳에 간판처럼 등장하는 전국왕과 현국왕의 커다란 사진이다. 심지어 식당에서도 볼 수 있었다.

전국왕인 라마 9세(재위 1946-2016)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70여 년의 임기동안 태국을 단 한 번도 벗어나지 않고 전국을 돌며 국민과 함께했다고 한다. 서거한 지 2년여가 흘렀지만 전국왕을 향한 태국민의 사랑과 존경은 현재도 진행 중인 듯했다.

태국은 우리와 달리 입헌군주제이다. 미얀마와 베트남, 라오스, 인도 등 주변국이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동안에도 태국은 남다른 외교정책으로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서구열강의 식민통치를 받지 않고 독립을 유지하였다. 최고지도자에 대한 태국민의 존경과 태국의 외교는 참으로 부럽지 않을 수 없었다.

마지막 여정 왓체디루앙

왓체디루앙은 1411년에 건설된 사원으로 높이 8m의 큰 입불상이 있는 본당이 있다. 건축 당시에는 90m에 달했는데 16세기에 일어난 큰 지진으로 파괴되어 현재 60m만이 남아있다. 태국의 다른 사원들과는 달리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같은 느낌이 물씬나는 이국적인 사원이다. 마침 석가모니 최초 설법 기념일로 많은 사람들이 왓체디루앙을 찾았다. 우리나라가 석가탄신일을 기념하는 것과는 또 다르다. 가족 또는 연인, 친구 등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누구든 꽃을 들고 탑을 돌고 촛불을 켜고, 성수를 올리는 모습은 마치 축제처럼 느껴졌다. 그들에게 종교는 참으로 자연스럽게 평범하며 삶 가까이 존재하는 것 같다.

풍부한 자연환경이나 자원, 열대성기후는 경제성장을 더디게 하고 그들을 다소 게으르게 보이게도 하지만 그들만의 종교문화와 삶을 조화롭게 영유하며 참으로 인간답게 누리며 살고 있단 생각을 했다. 환경과 문화는 바꿀 수 없겠지만 지향하는 목표를 달리해 좀 더 인간답게 행복한 삶을 꿈꿔봐야겠다.



메콩강을 기억한다

천안시동남구문화원 어머니



74 | 나의 문화유산기



촉촉하게 젖어있던 땅, 그것이 치앙마이 첫 느낌이었다.

수요일 오후, 익숙지 않은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서 미팅을 가졌다. 제2터미널은 단지 몇 개의 항공사만 운영하는 터미널이기 때문에 한적하고 인적이 드물었다. 제1터미널에서 20분 정도 더 차를 타고 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쾌적한 공항 내부는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 국적기 중 치앙마이 직항 단독노선인 대한항공 KE667편에 몸을 실었다. 비행기에서 태국어로 나오는 안내방송은 지금 태국에 가고 있다는 느낌이 물씬 들게 했다.

치앙마이 공항에 도착해서 익숙하지만, 평생 익숙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림 같은 태국어를 마주하고 길게 늘어진 입국 심사 줄을 보며 오늘의 밤이 길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미 5시간 넘는 비행에 1시간 정도를 걸친 입국심사와 짐 찾기에 지쳐있던 우리를 반긴 것은 치앙마이 비 냄새였다. 입국장을 통과하는데 온몸으로 느껴지는 따뜻한 공기. 바람과 함께 축축하게 다가오는 비릿함이 몸을 감쌌다.

치앙마이는 태국의 북부 끝자락에 위치한 도시이다. 배낭여행자의 도시로 많은 유럽인의 주목을 받는 곳이기도 하다. ‘태국 제2의 도시’, ‘북방의 장미’ 등 그럴싸한 별명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방콕, 푸켓, 파타야 보다는 한국에서는 덜 알려져 있다.

아침에 일어나 커튼을 쳐보니 밤에는 잘 보이지 않던 치앙마이 시내의 전경이 보였다. 핑강 그리고 멀리 도이수텡 산까지 이국적인 풍경임은 틀림없었다. 치앙마이의 느긋함과 후덥지근하지만 깨끗한 공기가 물씬 다가왔다.



첫 번째 목적지로 치앙마이의 랜드마크 격인 “왓 프라탓 도이수텡”으로 향했다. 도이수텡 산 중턱에 위치해 태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원이라고 한다. 그에 걸맞게 꼬불 꼬불한 산길을 헤치며 도착했다. 금으로 반짝반짝한 사원이 태국의 국교인 불교의 위치를 보여주는 듯했다. 처음엔 방콕에 있는 사원에 비하면 작은 크기라 생각했지만, 이 높은 산에 이렇게 멋지고 큰 사원을

만들기 위해 동원된 사람들의 노고를 생각해보며 그들의 불교에 대한 사랑을 다시 느꼈다.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며 나도 잠시 따라 해 보았다.

차에서 한숨 자고 인기척에 깨니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에 거의 다다른 듯했다. 메콩강을 기준으로 태국과 미얀마 라오스 3개국의 접경지인 곳이다. 국경을 지나야 하므로 또 한 번의 기다림을 통해 출국 심사를 받고 보트를 타는 곳으로 향했다. 국경이라고 생각해서였을까 꽤 오랜 시간 보트를 타고 라오스로 간다고 생각했는데 강을 가로지르니 라오스에 도착했다. 라오스에 도착해 준비된 버스로 향하는 길에 롤스로이스 등의 고급 차가 다니는 것을 보니 이곳에 카지노가 있다는 가이드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현지인의 마을로 들어가 생활상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중국문화촌을 돌아다니는 기회도 주어졌다. 아직 개발되지 않은 경제특구를 보면서 여러 나라의 투자를 받는 이 지역의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그려보았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현지인들이 판매하고 이용한다는 시장에 갔다. 쪽 놓인 가판대며 사람 가득한 시장을 보니 활기차게



느껴졌다. 이미 늦은 시간에 왔다는 가이드의 말을 들으며 우리나라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과일, 채소, 동물들을 보면서 이색적인 느낌을 물씬 느꼈다. 고즈넉한 시골길과 평화로운 분위기에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렇게 라오스의 일정을 끝냈다.



치앙마이로 돌아가는 길은 꾸불꾸불한 산길과 편도로 3시간이 넘는 기나긴 길이었다. 그래서 중간 중간에 휴게소도 들리고 사원 등 관광을 하는 시간을 가지며 움직였다.

경유지 중 한 곳인 메사이 국경지대는 태국 북쪽의 국경이었다. 그래서 강을 건너면 미얀마의 땅을 밟게 되는 것이다. 유럽과 같이 국경을 도시를 오가듯,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은 어렵지만 우리나라도 곧 가이드의 말처럼 북한의 길이 열린다면 약간의 절차를 걸쳐 기차나 버스를 타고 세계를 일주하는 날이 오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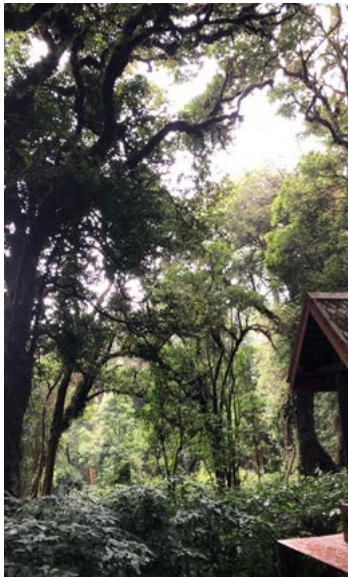
제일 인상 깊었던 사원은 치앙라이에 있는 백색 사원 “왓롱쿤”이다. 다른 사원들과 달리 장식, 사원의 전체가 다 흰색으로 지어졌다. 부처의 순수함을 표현한 것이다. 사원으로 들어가는 길, 다리 밑에 영생들이 지옥에 빠져있는 듯 묘사한 조각들이 가득하다. 지옥이 저렇다면 현생의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를 다짐하게 하는 조각들이었다. 각각의 장식들이 다 섬세함이 살아있었다. 또한 사원 곳곳에는 만화캐릭터들이 있어서 유쾌함을 자아냈다.

여전히 공사가 진행 중인 사원이라 완공이 되면 다시 와야겠다고 동전을 던지며 소원을 빌었다. 백색 사원 안에 유독 눈에 띄는 건물이 있다. 바로 화장실이다. 외부도 내부도 다 금색이었다. 백색 속 황금이라 부처의 순수함과 가장 대비되는 색이 아니었을까.

치앙마이는 슬로시티로 유명한 곳인데, 바쁘게 움직여서 색다른 느낌이었다. 다음번 치앙마이 방문 때 반대로 느낌의 미학을 즐기러 오겠다고 미래의 계획으로 가득 찬 치앙마이의 마지막 밤을 보냈다.

마지막 날 첫 번째 일정은 도이 인타는 국립공원이다. 태국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 대형버스가 올라갈 수 없어 송태우라는 차를 타고 이동을 했다. 산길을 요리조리 휘저으며 가는데 공기가 선선해지는 것을 코끝으로 느낄 수 있었다. 송태우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교통수단이라 특별한 경험으로 다가왔다.





태국에서 가장 높은 장소라는 표지판과 함께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졌다. 싸늘한 바람과 함께 영화 “원령공주”에서 튀어나온 거 같은 장소로 향했다. 푸릇푸릇 식물들과 시원한 공기가 치앙마이에서 느꼈던 더위를 한풀 꺾이게 했다. 내려오는 길에 태국의 왕과 왕비를 기리는 기념탑도 들리고 왓치탄 폭포에 들려 시원함을 느끼고 국립공원에서 하산했다.

길을 떠나 예술가들이 모여 사는 마을인 반강왓에 도착했다. 이제야 진정한 슬로우시티, 치앙마이의 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일정이 아직 남았기에 마을을 둘러 볼 자유시간을 짧게 가지고 싼캄팽민예마을로 향했다. 고산족이 모여 우산을 만들고 그 위에 그림을 그려 판매도 하는 예술적인 공간이었다. 원하는 곳에 아기자기한 그림을 그려주는 재미에 다들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여행 속 재미는 사소한 곳에서부터 시작된다.

마지막 날 저녁은 특별했다. 칸톡이라 불리는 작은 밥상에 여러 가지 태국 북부지역의 음식이 제공되고 식사를 하는 동안 식당 앞쪽에 마련된 무대에서 태국 전통공연을 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밥상 모양에 친근감이 느껴졌다. 짧지만 고산족의 문화를 경험해 보아 추억에 오래 남을 것이다.

마지막 날까지 알차게 치앙마이를 구경해야 하기에 바쁘게 움직였다. 저녁을 먹고 “왓체디루앙”으로 향했다. 일 년에 한두 번 볼 수 있는 날이라 사람들이 사원 주변에 어마어마하게 많았다. 사람들은 꽃을 들고 다니기도 하고 사원의 높은 곳으로 무언가를 올려보내기도 했다. 밤에 보는 왓체디루앙의 모습은 더욱더 멋졌다. 그리고 불심이 깊은 태국인들의 모습까지 태국의 느낌이 물씬 풍기는 곳이었다. 마지막 날, 가장 태국다운 모습을 보게 되었다.

마지막 목적지인 치앙마이의 야시장, 나이트 바자에 들리기 위해 시내로 향했다. 시내에 밤이 없는 것처럼 네온사인들과 사람들 그리고 노랫소리로 가득했다. 그렇게 태국의 밤거리를 걸으며 마지막을 보냈다.

이렇게 짧지만 길었던 여행은 마무리가 되었다. 태국, 라오스 지역 안에서 그들의 문화를 보존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내는 모습이 계속 눈에 아른거렸다. 우리가 함께 공유했던 시간이 앞으로의 문화원의 발전에 발돋움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2018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활동상황



사무직원 선진문화탐방

본회는 해외문화사업의 벤치마킹과 도내 사무직원간 교류를 위해 해마다 선진문화탐방을 진행한다. 올해는 태국 치앙마이와 인접한 미얀마, 라오스를 다녀왔다. 5월 9일(수)~13일(일) 3박 5일간 문화원 사무직원 35명이 참여한 가운데 해외의 민속예술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의 벤치마킹 방법을 탐구하였다. 오랜 역사에 걸쳐 불교를 근간으로 한 불교문화와 사원의 웅장한 건축양식이 발달하였고, 치앙마이와 인접한 라오스의 몽족마을과 돈사오섬을 방문하여 원주민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었던 탐방을 다녀왔다.



사무직원 위탁교육

문화원 홈페이지 및 회계프로그램 운영 보수교육

충남 문화원의 홈페이지 관리와 회계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보수교육이 8월 10일(금) 충남도청 별관동 전산교육실에서 진행되었다. 충남 문화원의 담당 사무직원 30여명이 모여 홈페이지와 회계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전문가 교육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도내문화원 사무직원 직무역량 강화 워크숍

본회는 충남문화원 사무직원들 30여명을 대상으로 8월 29일(수)~31일(금) 2박 3일간 동제주의 문화지리적 자연유산을 체험하고, 선진문화원 벤치마킹을 목적으로 제주문화원을 방문하여 우수 사업 사례를 청취하고 돌아왔다. 또한 팀 빌딩 및 특강으로 이뤄진 사무직원 직무교육을 함께 진행하여 도내문화원 사무직원 직무역량강화 워크숍을 마무리하였다.



충남 여성문화 네트워크 운영 '충남 여성문화 네트워크 포럼' 개최

본회는 충남 여성문화의 수요를 파악하고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충남 여성문화 네트워크 포럼을 11월 30일(금) 덕산 리솜스파캐슬 제라늄홀에서 개최하였다. 충남의 여성문화예술 종사자, 시군 관계자와 일반 도민 80여명이 참여하여 충남 여성들의 생활문화 현장의 성평등에 대한 원탁회의, 여성주의 도서전, 캘리그래피 체험, 네트워크 파티, 2018 충남여성문화인선언 발표 등을 진행하였다.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업무협약 체결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회장 김한국)는 지난 11월 28일 오전 9시 30분, 충남도서관 문화교육동 다목적실에서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원장 이종수)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양 기관은 충남지역 역사문화자원의 DB구축, 역사문화 관련 콘텐츠 개발 및 운영 등 역사문화자원의 발전을 위한 상호 연계를 강화를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2018 충남생활문화축제 '어서 해(偕)유(遊)'

본회는 충남의 문화원들과 함께 도민과 함께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사업을 진행하여 충남의 생활문화예술 동아리들을 발굴하고 육성하였다. 130여개 동아리를 통해 2천여명의 도민이 참여한 가운데,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와 충남문화재단이 공동주관으로 2018 충남생활문화축제'어서 해(偕)유(遊)'를 개최하여 충남의 생활문화 동아리들의 숨씨를 뽐내고 활동성과를 공유하는 축제의 장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어르신문화프로그램 '동네방네 문화로 청춘'

어르신 문화예술 활동 교류 및 사업성과를 공유하는 축제의 장을 만들기 위해 어르신문화프로그램 '동네방네 문화로 청춘'을 10월 12일(금) 예산군 천백년광장과 10월 18일(목) 청양문예회관에서 개최하였다. 충남지역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참여 어르신들과 지역의 문화예술 동아리들이 함께 문화공연, 체험, 작품 전시프로그램 등 마을축제를 개최하여 좋은 호응을 얻었다.

2018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활동상황



충남문화원장 - 충청남도지사 초청 간담회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회장 김한국)는 충남의 문화원장들과 지난 12월 28일(금) 오전 11시 30분, 충청남도지사의 초청으로 도청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근현대 구술채록사업의 지원과 문화예술 전문인력 예산 지원 등 충남의 문화예술 발전과 문화원 지원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저출산·고령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에 대해 피력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충남 문화원의 역할에 대해 당부했다. 충남문화원연합회 김한국 회장은 “충남 도정의 목표를 함께 인지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도록 문화원들의 힘을 모으고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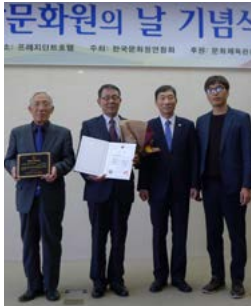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 (재)충남문화재단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회장 김한국)는 지난 4월 16일 오전 11시, 충남문화재단 회의실에서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업무 협약식에서는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와 (재)충남문화재단의 주요 관계자가 참석하여 문화예술로 행복한 충남 만들기 사업의 일환인 '2018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생활문화예술 동아리 활동지원은 물론 충남 생활문화축제 개최를 위한 기획 협력 등을 위해 양 기관이 뜻을 모았으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의견을 나눴다.

충남문화원연합회 김한국 회장은 “충남의 생활문화동아리들의 활동과 교류가 활성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번 업무 협약이 문화원과 문화재단의 장기적인 협력으로 이어져 충남도민의 문화예술이 봄처럼 꽃피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화원 소식



최우수상 수상



김연석 가옥

태안문화원, 2018 대한민국 문화원상 '최우수상' 수상

태안문화원(원장 정낙추)은 지난 10월 25일(목) 한국문화원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2018 지방문화원의 날 기념식」에서 대한민국 최우수 문화원상을 수상하였다.

이날 한국문화원연합회는 올해 대한민국문화원상 수상 대상으로 12개 지방문화원과 5명의 유공자를 선정했다. 태안문화원(원장 정낙추)은 전국 231개 지방문화원이 참여한 대한민국 문화원상 종합경영 분야에서 최우수상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정우영 태안향토문화연구소장은 지역 문화창달 분야 '향토사료 활용부문'에서 한국문화원 연합회장상을 받았다. 이에 태안문화원은 전국문화원이 참석한 가운데 두 개 분야에서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는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지난 9월, 전국 각 문화원을 대상으로 2017년 활동 사업 중 지역문화 발전 기여도, 문화 프로그램 운영 수준, 문화인력 양성 및 교육, 종합 경영성과 등을 서류 및 현장 평가로 진행되었다. 태안문화원은 태안문화제 등 25개의 사업을 진행하여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수익사업 등을 통하여 예산의 약 20%를 자체 확보하여 우수한 경영실적을 보이고 '김연석 가옥(태안동문리전통가옥-등록문화재 제704호)'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근대문화재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서산문화원 창립 60주년 기념식

지역의 역사와 전통문화에 대한 계승·발전, 향토사 연구와 자료발간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오고 있는 서산문화원(원장 이준호)이 창립 60주년을 맞아 지난 13일 문화원 공연장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 행사에는 맹정호 서산시장을 비롯해 임재관 서산시의회의장, 시의원, 도내문화원장, 회원 및 문화가족 등 35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행사에는 그동안 문화원에 물심양면 도움을 주신 우수 회원분들에 대한 표창패와 공로패를 수여함으로써 회원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한편, 서산문화원이 지역주민과 함께 걸어온 발자취를 담은 "창립 60주년사" 책자를 제작해 배부했다.

또한 문화원 부설 공연단 '어울림'의 식후공연과 지역문화 학교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의 작품 100여점을 전시해 참석자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서산문화원 1000년 대계의 초석을 다지는 의미있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이준호 서산문화원장은 문화활동을 "무심코 흐르는 냇물 같지만 주변을 정화하고 자정하며 큰 목적지 바다를 향해 유유히 흘러가는 강물"에 비유하며, 의지와 인내가 필요한 문화활동에 시민들의 동참과 지속적인 관심이 절실하다고 60주년의 소감을 말했다.

문화원명	소재지	설립일	원사총면적(평)	원장	사무국장	직원	전화/팩스	비고
충청남도 문화원연합회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21 충청남도청 별관동 209호	1987.02.		회장 김한국	사무처장 정지수	김상희 조민영	T. 635-9102 F. 635-9104	
공주문화원	공주시 대동1길 66(반죽동)	1954.12.16	2,160	최창석	현대수	양문숙 정지은 김선아	T. 852-9005 F. 856-6746	
금산문화원	금산군 금산읍 금산로 1559	1967.11.18	1,203	장 호	전병만	석헌숙 손홍영 조주현	T. 754-2724 F. 754-6611	
논산문화원	논산시 관촉로 113-16	1964.12.30	1,757	권선옥	이준창	전현희 고승연 김형태	T. 732-2395 F. 732-2394	
당진문화원	당진시 남산공원길 151-16	1955.09.01	1,130	유장식	강대원	백숙현 이아름 모선호	T. 354-2367 357-2367 F. 356-3850	
보령문화원	보령시 대흥로 63	1956.03	739	황의호	임성빈	김명희	T. 934-3061 F. 936-3071	
부여문화원	부여군 부여읍 의열로 43	1954.03.01	3,269	정찬국	김인권	이미영 이상연 김미완 김영란	T. 835-3318 F. 833-3318	
서산문화원	서산시 부춘공원2로 11	1965.02.11	1,884	이준호	김영철	〈사무국〉 최윤경 이용배 황미란 길현정 〈영상미디어〉 강찬우 김윤옥	T. 669-5050 F. 669-4567	
서천문화원	서천군 서천읍 화금서길 29-18	1965.01.26	4,272	이관우	박은희	정혜옥 문치운	T. 953-0123 F. 953-0133	
예산문화원	예산군 예산읍 천변로 90번길 3	1955.10.15	2,530	김시운	박세진	〈본원팀〉 이충환 이수영 인구호 〈극장팀〉 김동환 장화수 이다연 박지혜 장혜민 김세별 유승석 〈축제연구팀〉 조은실 황희중	T. 335-2441 T. 332-2441(별관) F. 334-4330	
온양문화원	아산시 남산로 28	1957.05.10	824.2	정종호	김형기	이명숙 박현미 박상규	T. 545-2222 F. 542-4444	
천안시 동남구문화원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아우내순대길 29	1958.04.20	487	조성오	곽승일	엄미나	T. 564-1022 F. 563-1021	
천안시 서북구문화원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3로 7-11	1963.05.10	275	이종석	신광식	문경희	T. 581-2101 F. 582-1725	
청양문화원	청양군 청양읍 중앙로 129	1965.02.11	945	이진우	복은주	차승원 송미애 강원구	T. 943-4774 943-4775 F. 944-1030	
태안문화원	태안군 태안읍 백화로 192	1990.06.05	3,507	정낙추	정지수	〈사무국〉 김유미 안은선 안상은 이용석 〈시네마〉 전홍배 오우리 박미영 윤은진 김서희 박주희 박예솜	T. 674-2192 F. 675-6968	
홍성문화원	홍성군 홍성읍 총절로 951번길 16	1954.03.31	1,995	유환동	조남민	김숙희 정선영 조복신	T. 632-3613 F. 633-1199	

